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21.92	↑ 코스닥	742.90
	(-14.83)		(+2.58)
↑ 금리 (미국 9년)	2.635	↑ 환율 (원-달러)	1454.00
	(+0.053)		(+6.30)



## 스마트폰도 AI 두뇌 경쟁... 삼성에 도전장 던진 애플

<갤럭시 S25>

<아이폰 SE4>

애플 '아이폰 SE4' 이번주 공개 보급형 모델에 최신 AI기능 탑재 자체 개발한 5G 칩 장착도 주목 삼성 '갤럭시 S25' 흥행에 맞붙

이달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이 연이어 공개되며 시장 경쟁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세계에서 공식 출시된 가운데 애플은 마니아층이 두터운 아이폰 SE4를 이번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아이폰SE4는 보급형 모델인데도 인공지능(AI) 기능 등 최신 플래그십 아이폰에만 적용됐던 기능들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갤럭시 S25와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그간 마니아층을 확보해왔던 SE시리즈가 최근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한 만큼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5를 겨냥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이번주 아이폰SE 신제품을 발표하고,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 행사는 따로 열지 않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SE4는 지난 2022년 아이폰 S

E3가 출시된 이후 3년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그간 애플이 아이폰SE 시리즈를 2년 주기로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1년 늦은 셈이다.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SE를 처음 출시한 이후 2020년과 2022년 각각 2세대, 3세대 아이폰SE를 선보였다.

이처럼 아이폰 SE4의 출시 시점이 늦어진 만큼 기능들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아이폰 플래그십에만 적용됐던 기능들이 보급형 모델인 SE4에도 대거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 ▲USB-C타입 ▲페이스 ID 안면인식 ▲아이폰 14와 유사 디자인 등이 있다.

SE4의 가장 차별화된 점은 애플 최초로 퀄컴 5G 칩이 아닌 자체 개발한 5G 칩을 장착하는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SE4는 애플의 AI기능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가장 저렴한 단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16과 동일한 신형 A18 칩을 탑재하고 램 용량도 8GB는 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은 아이폰 14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면서 화면 크기 또한 6.1인치로 전작인 아이폰 SE3(4.7인치)보다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SE4의 출시 가격은 전작(429달러)보다 조금 더 비싼



빙속 여자 팀 스피리트 '초대 챔피언'

김민지와 이나현, 김민선(왼쪽부터)이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스피리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를 따면서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 금메달 획득 타이 기록을 썼다.

김민지와 이나현, 김민선(왼쪽부터)이 9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스피리트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걸린 9개 금메달 중 6개를 따면서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 금메달 획득 타이 기록을 썼다.

/뉴시스

499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까지 스마트폰 신작을 출시함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SE4는 보급형에 그쳤지만 기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되면서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5시리즈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S25시리즈가 역대 최대 판매율을 기록한 데다 최근 SE시리즈의 판매가 부진한 만큼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시했다. S25 시리즈는 AI기능도 한층 진화하고 지원 언어도 46개로 늘었다. 갤럭시 S25는 S시리즈 가운데 역대 최대 판매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앞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판매에서 130만대가 팔리며 역대 S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신기록도 세웠다.

반면 최근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율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작 아이폰SE3의 경우 인방인 미국 시장에서 출시 초기 3주간 판매량이 전작 아이폰SE2 대비 8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상반기 판매율이 저조한 아이폰SE3와 아이폰13미니 생산량을 감축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축구장 8개 크기... 롯데, 인도 신공장 준공

신동빈, 14억 소비시장 본격 공략 "최상 품질로 최고 브랜드 만들 것"

롯데가 인도에서 신공장 준공식을 열고 14억명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롯데는 롯데웰푸드를 통해 2004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 건과 법인인 '롯데 인디아'와 빙과 법인인 '하브모어'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인도 매출은 2023년 기준 2700억원에 달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6일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Pune)시에서 하브모어 푸네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서 깊은 하브모어 기업을 인수하며 인도 빙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롯데는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번 신공장 준공이 롯데의 글로벌 식품 사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롯데는 6일 인도 푸네시에서 하브모어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롯데웰푸드가 2017년 하브모어를 인수한 이후 처음 증설한 생산시설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이 신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지주

될 것이며, 앞으로 최상의 품질 제품을 만들어 하브모어를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푸네 신공장은 롯데웰푸드가 2017년 12월 하브모어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증설한 생산시설이다. 공장 부지 면적은 6만㎡로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고, 기존 구자라트 공장보다 6배 큰 규모다.

신공장에는 롯데웰푸드의 자동화 설비 등 한국의 선진 생산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에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지며 올해에만 빙과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9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푸네 신공장은 오는 2028년까지 생산라인을 16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푸네 신공장이 위치한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시는 하브모어에게 있어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다. 하브모어는 푸네 공장의 생산 물량을 바탕으로 인도 서부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푸네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 "美,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부과시 총 수출 감소 132억달러 달할 듯"

무협, 트럼프 관세조치 영향

특정국 관세, 對美수출 '반사이익' 보편관세가 수출에 더 직접적 영향

미국의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대 미국 수출 증가가 상쇄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와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승 영향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수출 감소 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특정국 대상 관세보다 보편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

를 통해, 미국의 관세부과 시나리오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대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부과(시나리오1)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관세부과(시나리오2) △시나리오2+보편관세10%포인트 부과(시나리오3) 총 3단계다.

우선 중국에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1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對세계 수출 감소 영향은 전년도 총수출의 0.1%에 해당하는 4억1000만달러로 추정됐다.

여기에 3월로 유예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 관세부과(시나리오2)가 시행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시나리오1보다 작은 0.03%(2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3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김정은, 핵무력 고도화 방침 재확인... "미국이 세계 분쟁 배후"  
▲이재명 '우클릭' 속 민주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 준비기구 가동 /사진 뉴시스

▲여 "현재, 한덕수 탄핵 각하해야... 대미 외교 손발 묶여"  
▲이준석 "창당 날 초심으로 돌아가 전진하자"... 허은아 "개과천선하라"

▲민주당, 11일부터 매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대국민 소통 강화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법률지원 변호사, 한동훈 '내란 혐의' 고발

# 4대 금융지주, 작년 역대급 실적... 비은행이 희비 갈랐다

총 수익 9% 증가, 16조4205억  
**KB금융** 증권·손해보험·카드 성장  
 각각 당기순익 50%, 17%, 15% ↑  
**신한금융** 투자증권 순익 144% ↑  
**하나금융** 증권·카드사 실적 호조  
**우리금융** 카드 전년비 32% 증가



국내 4대(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사가 지난해 16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지주의 실적 성패는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면서 올해 비은행 강화 비율 높이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금융지주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지난 2023년(15조115억원) 대비 1조4090억원(9.3%)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지주 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전년(4조5948억원) 대비 10.5% (4834억

원) 증가한 5조7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5조클럽에 입성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4조 클럽'을 달성한 후 3년 만에 '5조 클럽' 입성이다.

이어 신한금융이 4조517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하나금융 3조7388억원, 우리금융 3조860억원 순이다.

금융사들이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이유는 이자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에서 3.00%로 인하했지만, 금융사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가 높아지면서 4대 금융사의 총 이자이익은 41조8760억원에 달했다. 전년(40조6553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금융지주지만 순이익의 향방은 비은행 계열사 실적에서 갈렸다.

리딩금융을 수성한 KB금융은 KB증

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50.3%, 17.7%, 14.7%, 15.1% 증가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면서 KB금융 실적에 견인했다.

신한금융은 신한투자증권 순이익이 143.6% 급증, 신한라이프 11.98% 증가했지만, 신한카드가 -7.8%, 신한캐피탈 -61.5%, EZ손보 174억원 적자, 신한자산신탁 308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의 경우 증권·카드 계열사가 실적 호조세를 기록했지만 다른 계열사의 경우 역성장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22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 2023년 2924억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 하나카드는 역시 두자릿수 성장에 성공해 221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나캐피탈(1163억원)과 하나자산신탁(588억원)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44.5%와 27.3% 감소했다. 또한 하나생명은 7억원, 하나

저축은행은 3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금융 역시 우리카드가 전년 대비 32.4% 증가했고, 우리금융캐피탈 10.9% 증가, 우리투자증권 흑자(20억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들 계열사들의 합한 당기순이익은 약 2910억원에 불과하다. 4대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 입장에선 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4대 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KB금융이 40%로 압도적 1위를, 이어 신한금융 25%, 하나금융 15%, 우리금융 8.4%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 비중을 키우는 동시에 비이자이익 확대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금리 변동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부가 안정적인 그룹 순이익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그룹들의 M&A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인도 성장률 둔화... 펀드 올들어 6.73% ↓

증시 니프티50 고점대비 10% 하락  
 과거 성장률 8%... 올해 6%대 예상  
 달러당 87루피... 환율 사상 최저치  
 외국인, 3개월새 증시 300억달러 매도

한때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았던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둔화하면서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37개 인도 펀드는 연초 이후 평균 6.7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유럽 펀드(6.88%), 일본 펀드(-1.55%), 중국 펀드(-0.78%), 미국 펀드(-0.44%) 등과 비교하면 주요 국가별 펀드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인도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도 부진했다. 'TIGER 인도니프티50레버리지(합성)'와 'KODEX 인도 Nifty50 레버리지(합성)'의 3개월 수익률은 각각 -6.66%, -6.15%를 기록했다. 'KODEX 인도Nifty50'과 'TIGER 인도니프티50'도 -2.34%, -2.03%로 하락했다. 'ACE인도컨슈머퍼워드액티브' 역시 -8.97%로 낙폭이 컸다.

(주요국 펀드 평균수익률) /에프앤가이드

지역/국가	연초이후(%)
유럽	6.88
미국	-0.44
일본	-1.55
중국	-0.78
인도	-6.73

인도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50지수도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약 10%가량 하락했다. 인도 경제 성장세 둔화가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대 성장률을 이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진과 기업 투자 둔화 등의 영향을 반영해 2024~20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GDP 성장률을 6.4%로 제시했다. 2025~2026회계연도 성장률도 6.3~6.8%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목표로 한 연 8%대 경제 성장과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

환율도 인도 시장의 불안 요소다. 루피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달러당 83루피 수준이었

던 환율은 현재 87루피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증시에서 300억 달러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인도 펀드 설정액은 700억원 넘게 줄었다. 인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간 '관세 전쟁' 속에서 인도가 반사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장권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관세 이슈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을 대체할 투자처로 인도가 주목받을 수 있다"며 "중국 내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수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금리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강한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 역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를 피해 갈 수는 없겠으나 여전히 연간 성장률 추정치가 6.5%대로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

## '반도체법·연금·추경' 줄다리기 이재명·권성동, 국회연설 출격

### 2월 임시국회 주도권 선점 경쟁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잇따라 나서며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정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에게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재명 '내란 동조세력' 강조 차기 대권주자 면모 부각할 듯  
 권성동, 입법폭주·의회독재 등 보수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에 나선다. 양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달로 접어들었는데도 국정이 '내란 동조세력'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집권플랜 본부는 지난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5년 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방법원 폭동 등 정치 양극화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우려를 표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특검과 입법 강행, 국무위원의 출탄핵 시도, 국회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의혹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등을 언급하며 보수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를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담당 실무자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오는 12~14일엔 국무위원 등을 국회로 불러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따져 묻고,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푸네공장, 인도 남부 진출 전초기지로

>> 1면 '축구장 8개 크기...'서 계속

기존 구자라트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핵심 상권인 서북부지역에 더욱 집중 공급한다. 또한 푸네시가 빙과 생산 주요 원료를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브모어는 롯데 브랜드 제품 생산도

확대한다. 현재 구자라트 공장에서 월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푸네 신공장에서 대치바, 죠스바, 수박바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생산해 인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 브랜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웰푸드는 신공장 준공 및 통합법

인 출범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반기 내에 출범하는 롯데 인디아(LOTTE India)와 하브모어의 통합법인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물류 거점을 통합해 효율화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하리아나 공장을 빼빼로 브랜드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올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딥시크, 한달천하로 끝나나... '보안 리스크'에 전 세계 등돌려

딥시크, 中 통제 가능성... 논란 확산  
정부, 기업 등 일제히 접속 차단 나서  
가격·성능만큼 보안문제 중요해져



한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딥시크(DeepSeek)와 챗GPT(ChatGPT)의 애플리케이션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 'R1'이 출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렴한 비용과 오픈소스 전략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지만 비용 인상, 보안 논란, 성능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차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딥시크는 기존보다 대폭 인상된 서비스 요금을 발표했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2월 8일 오후 4시(협정세계시)부터 딥시크 API의 할인 혜택이 종료되고 정가로 복구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딥시크 V3'의 API 사용료는 이전보다 5배 이상된다.

## ◆ 딥시크, API 가격 5배 인상... 경쟁력 하락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진 AI 기능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앱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보다 최대 5배 인상된 API 요금으로 인해 딥시크의 AI 모델의 요금은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비싼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은 크게 하락했다.

가격 인상에 따라 딥시크 V3의 100만 토큰당 입력 비용은 0.014달러에서 0.07달러로, 출력 비용은 0.28달러에서 1.10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구글이 지난 5일 출시한 '제미니 2.0 플래시-라이트'는 입력 0.075달러, 출력 0.3달러로 딥시크보다 저렴하며, 멀티모달 기능도 제공한다.

오픈AI는 여전히 딥시크의 AI 모델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최근 API 비용을 2~4배 낮췄으며, 최신 추론 AI 모델 'o3-미니'를 챗GPT 무료 버전에 탑재해 접근성을 높였다.

## ◆ 중국에 데이터 전송 논란... 정부·기업 차단 움직임

비용 문제 외에도 보안 취약성 논란이 불거졌다. 딥시크의 AI API가 중국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딥시크 규제 또는 차단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딥시크 모델이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쉽게 '탈옥(사용자가 AI 모델에 보안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AI가 당초 제공하지 않도록 설정된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테스트'에 허점을 보인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엔트로픽의다리오아모데이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차이나토크 팟캐스트에서 "딥시크는 우리가 테스트한 모든 모델 중 보안 수준이 가장 낮았다"며 "(예를 들어) 생물학 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한 없이 생성하는 등 안전성 테스트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

가했다.

여기에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 통신사로 전송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사이버 보안 회사 페루트시큐리티는 딥시크 코드에서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온라인 등록소(CMPassport)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반 차리니 페루트시큐리티 CEO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서버와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확인했다"며, 딥시크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차이나모바일은 고객 데이터 무단 접근 우려로 2019년 미국에서 운영이 금지됐고,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데 이어 2022년 국가 안보 위협 목록에 추가된 바 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채팅 및 검색 기록, 키 입력 패턴, IP 주소, 다른 앱의 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고유한 사용자 디지털 지문을 생성해 웹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 이용자 급감... 생존 가능성 불투명

이러한 우려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차단을 검토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9일 아이지아이이전웹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의 일간 활성 사용

자수(DAU)는 지난달 28일 19만1556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정부 차원의 차단 움직임이 본격화된 4일에는 7만4688명으로 급감했다. 6일에는 6만1184명까지 떨어져, 9일 만에 6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설치 건수도 17만1258건에서 1만62건으로 95% 줄었다.

정부 차원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정 생성형 AI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부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공문을 보내 AI 사용 시 민감 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AI 생산물을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부처는 내부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주요 민간기업들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관련 질문을 공식 전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가격, 성능,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딥시크가 연구용 오픈소스 모델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딥시크가 별다른 업데이트를 내놓지 못한다면, 몇 개월 뒤에는 소수 기업이 오픈프레미스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스타트업의 연구용 모델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해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산업계, 美 친환경정책 예의주시... 태양광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태양광 산업에 우호적 입장  
한화솔루션 등 현지진출 기업 호재



OCI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OCI에너지가 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 전경. /OCI홀딩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에 회의적인 모습을 내비쳐 전기차와 이차전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태양광 업계는 사뭇 상반된 분위기를 띠고 있다. 트럼프는 태양광에 대해 그간 우호적인 입장을 적극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올해 태양광 산업이 장기 침체를 딛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태양광은 멋진 산업", "태양광 산업 확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전기차와 풍력 시장에 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판매량이 감소하며 부진을 겪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현지에 밸류체인을 구축 중인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보편관세를 발효했다.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판의 관세는 50%에서 60%로 인상됐다. 향후 미국 내 태양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국내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도 트럼프 2기 출범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운다고들 하지만 규제와 정책 방향은 전임 정부보다 더 명확할 것"이라며 "사업을 하기엔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수출, 배출가스 규제 해소를 한 점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LNG 재고가 감소하면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

서 태양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수혜 기업으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한화솔루션이다. 한화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은 지난 2023년 조지아주 달튼에 2공장 모듈을 증설한 데 이어 지난해 카터스빌 모듈을 증설했다. 올 하반기에도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전체 생산능력 40% 수준에 달하는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OCI에너지도 올해 인근 주(州)로 사업을 확대하며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OCI에너지는 지난해 말 미국 전력공급회사 CPS에너지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에 20년간 태양광발전 전

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6년까지 설비용량 ESS 프로젝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석연료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점도 태양광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에너지 수요 급등에 RE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글로벌 탈탄소 정책이 맞물리면서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광 발전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쟁 심화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미국에서의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관세전쟁 장기화 가능성 대비해야”

▶▶ 1면 '美,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서 계속

이는 관세부와 대상국들의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한국의 對중국(-6.8억달러), 對캐나다(-2.6억달러), 對멕시코(-12.4억달러) 수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으로 對미국 수

출(+19.6억달러)이 증가해 감소분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3의 경우 수출 감소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對미국(-7.9%, -100.3억달러), 對멕시코(-11.5%, 15.7

억달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총수출 감소폭은 1.9%(-13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정국 대상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반사이익보다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국의 對미 수출 감소폭은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7.85%)은 최근 3개년(2022~2024) 미국의 수입

상위 30개국 중 칠레(-2.26%), 호주(-7.04%), 일본(-7.32%)에 이어 4번째로 적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의 對미국 수출 영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산업 경합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수출 품목 중 미국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 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수송

기기와 전기·전자제품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반사이익이 각각 11억 7000만달러, 5억 5000만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보편관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수출 감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만·관이 지혜를 모아 선제적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고 관세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딥체인지’ 앞세워 플랫폼 혁신 후금융·디지털 고도화 총력

삼성카드사는 올해 새로운 대표를 맞이했다. 카드업계가 인사쇄신을 단행하는 가운데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대환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년여간 삼성카드를 이끌었다. 건전성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삼성카드

### ⑬ 김 이 태 대표이사

김이태 사장의 역할은 플랫폼 성장에 방점을 찍는 ‘혁신 경영’이 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출신이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에 투자관리(IR) 임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그룹장 및 전략그룹장, 대외협력팀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벤처투자에서 지난 2024년부터 1년여간 지휘봉을 잡았다. 임기 기간 9조원대 해외벤처펀드에 180억원을 출자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행보를 보였다.

#### ◆ ‘모니모’ 중심으로 시너지 높여야

김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차기 경영 기조를 강조했다. ‘김이태호’의 슬로건은 ‘딥체인지(Deep Change)’다. 디지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겠다는 포부다. 카드업계는 올해 디지털 분야의 진일보를 예고했다. 삼성카드 또한 정면대결을 펼칠 방침이다.

#### 연체율 최저... 재무 건전성 확보 대손충당금 감소, 리스크 관리 강화 후 금융·디지털 고도화 등 시장 공략

카드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전환(DT)을 시도했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에 영업 기조를 ‘생존’에 둔 만큼 디지털 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삼성카드의 경영전략은 경쟁사 대비 뚜렷하다. 삼성금융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모니모’ 앱에서 카드 사로서 임무를 강화할 전망이다. 모니모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사의 통합앱이다. 지난 2022년 4월 모습을 공개한 이래 신용 관리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카드사는 모니모에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결제 분야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삼성카드는 특허청에 ‘모니모페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슈퍼앱’ 구축을 위해 결제 기능 고도화에 착수한 것이다. 모니모 사



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 이미지.

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신규회원 유치 등 영업 분야에서도 상호작용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카드는 ‘모니모A 카드’를 공개했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0.5%를 적립하며 모니모앱에 7일 이상 접속하면 적립률을 0.5%포인트(p) 추가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결제금액의 9%를 추가로 쌓을 수 있다.

김 사장은 “딥체인지를 통해 대내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지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건전성 최상위, ‘1등 카드사’ 목표

올해 삼성카드가 숙원 과제인 ‘1등 카드사 도약’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그동안 삼성카드는 건전성 확보에 적잖은 공을 들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94%다. 여기에 대환대출 잔액을 포함하면

1.03%로 소폭 상승한다. 주요 카드사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삼성카드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 또한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말과 비교하면 연체채권을 털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은 연체 기간별 적립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모든 구간의 연체율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3~6개월 연체액을 가장 많이 줄였다. 작년 9월말 기준 삼성카드의 3~6개월 연체액은 863억5300만원이다. 연간 19.7% 감소했다. 이어 ▲1~3개월 연체액(17.2% ↓) ▲6개월이상 연체액(14.7% ↓) ▲1개월미만 연체액(8.7% ↓) 순이다.

건전성을 확보한 만큼 대출, 신용 판매 등 수익 사업에서도 자유롭다. 올해는 자동차 할부 수익 확대가 요구된다. 지난해 관련 수익이 감소했

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말 삼성카드의 자동차 할부 수익은 93억8500만원이다. 연간 11.2% 감소했다. 자동차 할부의 경우 수익성은 물론 신관잔액 확대까지 노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최근 삼성카드는 자동차 금융 상품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 삼성카드로 현대자동차 디올뉴 그랜저(현금구매비율 30%·대출 기간 36개월)를 구매하면 연 3.9~7.1% 금리를 적용한다. 업계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일시불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찾는 ‘오토캐시백’ 비율도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경우 2.4%로 업계에서 환급률이 가장 높다. 건전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단행하는 모양새다.

#### 모니모 결제 고도화, 슈퍼앱 도전 자동차 금융 금리 경쟁력 확보 데이터 협력·신사업 등 확대 ‘딥체인지’ 전략... 디지털혁신 가속

#### ◆ 카드사 ‘영업공식’ 업무협약 늘릴까?

김 사장 체제 아래 타 업권과의 공격적인 업무협약도 점쳐진다. 김 사장이 삼성벤처투자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사의 경우 타업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충성고객 확보뿐 아니라 사업 프로젝트 진행 시 발생하는 부담도 함께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카드는 내실경영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간 업무협약은 3차례에 그쳤다. 그중 데이터 관련 협약이 2차례다. ‘세빌스코리아’ 및 ‘아모레퍼시픽’과 맞손을 잡았다. 신사업의 초석을 다졌지만, 신규 회원을 확보할 유인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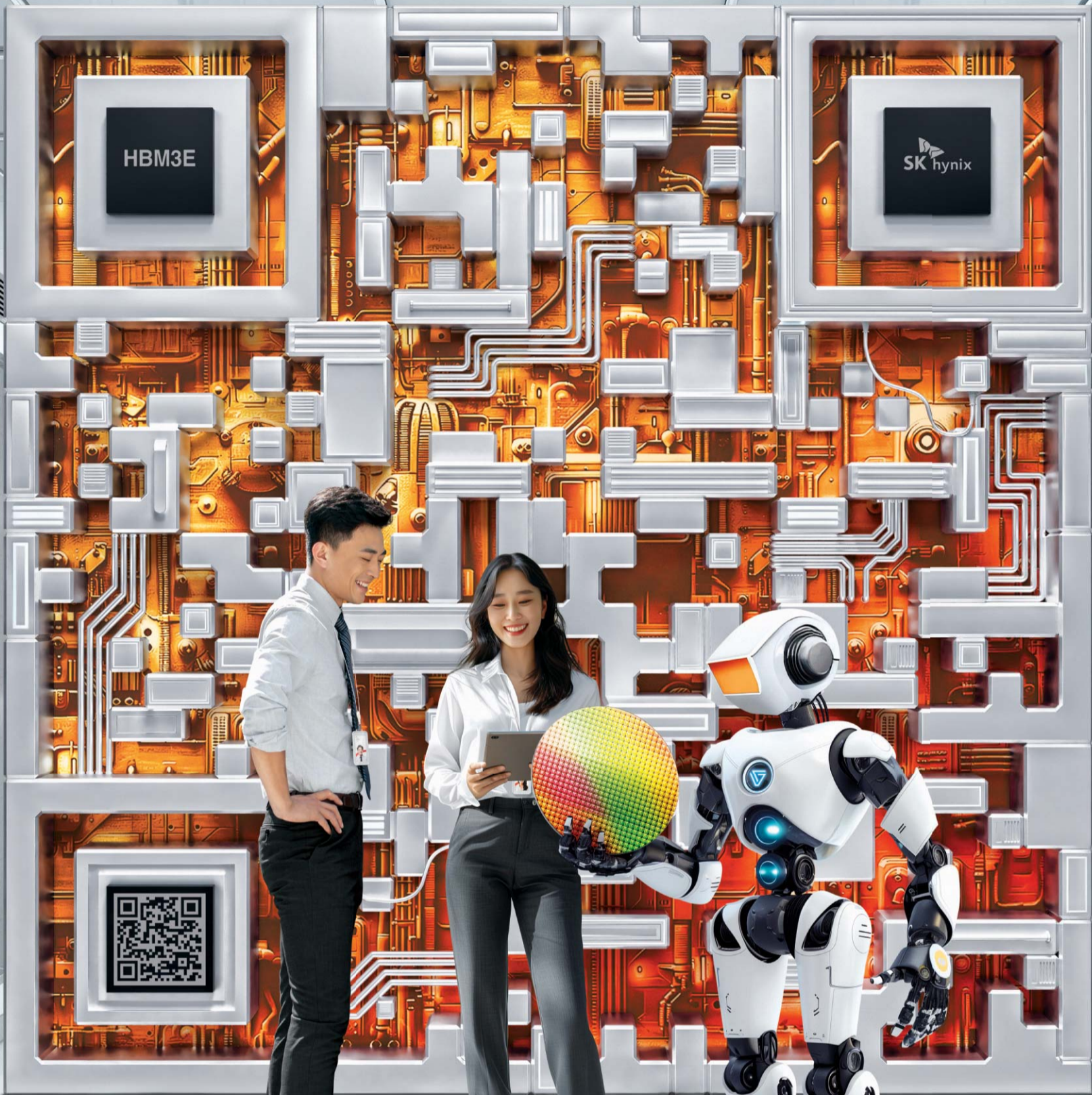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성카드의 신규 회원은 11만명이다. 같은해 7월 11만7000명을 확보한 뒤 등락을 반복했다. 신규 회원 확보 속도만 놓고 보면 업계 상위권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오는 3월 김이태 사장이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선임되면 구체적인 경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오토할부 영업사원’ 이미지.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이견에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與,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 도입과 모수·구조개혁 동시 진행 주장 野, 합의 사안 처리 후 논의 입장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에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 주 초에 국정협의회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회담 연기의 주요 원인은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무협의에서 교통

정리 한 이후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자체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등의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자가 서면협의 하면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

일 근로를 적용받지 않게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고소득 전문직의 주52시간 근로 예외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해당 조항 도입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이번엔 반도체 특별법의 지급

성에 따라 여야 합의한 사안만 담아 처리하고, 화이트 이그젠션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기초·지역·퇴직 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계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말거의 합의가 된 모수개혁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권영세 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양당이 ‘선(先)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뺀 모수개혁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담회에서 모수개혁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구조개혁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

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도 민주당이 정년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이라며 양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의 정책 입장차에 국정협의회 개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양당은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대립만 지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즉시 가동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조기대선’ 선긋기 무색...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 본격행보

오세훈, 토론회 열며 의원들에 초청장 홍준표, SNS 등서 대권 도전의사 밝혀 한동훈, 재야 인사 만남... 공개행보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권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조기대선과 선을 긋는 모양새가 무색하게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공식적으로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사실상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를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작에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권 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자서전 ‘정

치가 왜 아래’를 출간했다. 통상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은 자서전 출판과 함께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사퇴 후 설 연휴 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조만간 공개 행보를 할 전

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는 생각한 것이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탄핵 인용 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잠룡으로 분류된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에 찬성해, ‘쇄신 이미지’와 ‘중도 확장성’을 앞세우고 있다. 또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데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은 만큼, 조

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원 전 장관은 최근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보수진영 인사들과 만나며 탄핵 정국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 재개

‘여야 합의 여부’ 최대 쟁점 될 듯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언급 전망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의장실에 낸 것으로, 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로 과규택 의원, 청문위원으로는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이 이 공문을 보낸 당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우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의사과는 인청특위 위원 선임안을 확정한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국회 측이 위의 공문들을 증거로 제

출한 것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인청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임해 의장실에 낸 만큼,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공문수·발신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였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꾀하며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10일 재개되는 변론기일에서는 ‘여야 합의’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도 언급될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 李 비판하는 비명계... ‘통합’ 과제 수면 위로

임종석·고민정 등 비명계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비명(비이재명)계에 비판을 받고 있어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오랜 과제인 ‘통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명계는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 재편 과정에서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는 식으로 원내 진입에 거의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보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자, 정권 교체에 위해서라면 비명계도 끌어안고 세력을 불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오기 시작했다.

최근 가장 공격 수위를 높이는 비명계 인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임 실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박이는 데 앞만 보고 갔다”며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했다.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최고위원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비명계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박태홍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 차량관리가 쉬워진다 삼성화재 Car케어

※ 삼성화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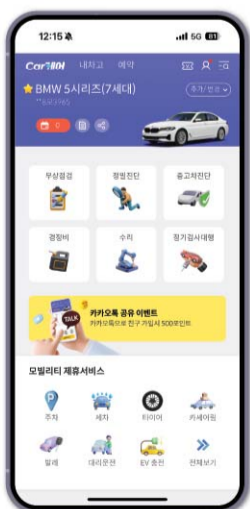
경정비



차량 점검



정기검사대행



## 모바일로 차량관리를 간편하게 끝내세요!

차량 점검, 수리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과까지 확인 가능

삼성화재만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애니카랜드(경정비)  
#애니카패밀리센터(수리)

모바일로 끝내는  
정기검사대행 서비스  
신규 OPEN  
(픽업 서비스 제공)

주차, 세차, 렌터카  
제휴 서비스 제공



Car케어

삼성화재

본 서비스는 삼성화재 모바일 홈페이지와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r케어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소모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일부 휴대폰 기종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휴서비스 혜택은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휴서비스 혜택은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616호 (4072, '25.02.04~'26.02.03)

# 보수적 행보 삼성카드, 신한 제치고 '순익 1위'

카드사 5곳 합산 순익 2조 돌파  
삼성카드, 연체율 낮춰 순익 확대  
신한카드, 대손충당금 부담 증가  
올해 신입대표 간 진검승부 예상

지난해 신용카드사 5곳의 합산 실적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4분기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삼성카드가 '1등 카드사' 자리를 차지했다.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살얼음장' 행보가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합산 순이익은 2조811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8641억원) 대비 7.7% 증가했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4곳의 실적이 모두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확대됐다.

지난해 삼성카드의 순이익은 66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094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반면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연간 7.8% 감소한 5721

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카드가 신한카드 대비 연간 1000억원가량 더 벌어들인 반면 '1등 카드사' 자리를 차지했다. 그간 삼성카드의 신한카드와의 순이익 격차를 줄여온 바 있다.

삼성카드가 1등 카드사 지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보수적인 영업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 연체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을 최소화한 채 취급하면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할부금융 손익은 신한카드의 8.3% 수준에 불과하다. 연체율 상승 리스크 해소에 총력을 다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카드의 연체율은 1.00%다. 연간 0.18%포인트(p) 줄이는 데 성공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연체율은 0.06%p 증가한 1.51%다.

연체율 격차를 보이는 만큼 신한카드의 대손충당금 부담은 확대됐다.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카드가 사용한 대손비용은 9171억원이다. 연간 3.8% 증가했다. 반면 삼성카드의 연간 4.1%감소한 6904억원의 대손충

당금을 쌓았다. 양사의 대손비용 격차는 2267억원이다. 연간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어 KB국민카드는 2024년 4027억원의 당기순이익은 거뒀다. 지난 2023년 연간 실적이 7.3% 감소하면서 351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또 다시 4000억원선으로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KB국민카드는 영업비용 효율화와 신판잔액 확대를 꾀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카드의 개인신용카드 승인잔액은 84조5389억원이다. 연간 7.25% 증가했다. 전업 카드사 8곳의 평균(5.26%) 대비 1.99%p 높은 수준이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모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하나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217억원이다. 전년 동기(1710억원) 대비 29.6% 증가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지난해 카드업계 순이익이 일괄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트래블로그를 필두로 해외 신판잔액 확

대에 성공했다. 이어 국내 개인 신용카드 취급액 또한 6.17% 오른 37조3226억원이다. 국내외 영업 모두 성공했다.

우리카드의 순이익은 연간 32.4% 증가한 1470억원이다. 지난 2023년 연간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고배를 마셨던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증가세만 놓고 보면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5곳 중 가장 가파른 수치다. 자체 결제망 구축 등 비용 효율화에 성공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카드업계는 본격적인 영업확대를 시작했다. 올해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5곳 모두 새로운 대표를 선임하는 등 인사쇄신을 단행했다. 신입대표 간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에서 조달비용 효율화 방안을 구축한 데다 허리띠를 졸라 전반적인 순이익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 금융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KB국민카드 페이 이용고객 대상 상품권·포인트 선물

KB국민카드는 KB페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KB페이에서 2월에 달콤한 선물을 드립니다'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KB페이 신규 고객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기존 고객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이벤트 응모 후 1개 기관 이상 자산을 연결하고, 자산조회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면 된다. 통해 최대 100만 포인트 리를 제공한다.

## 신한카드 갤럭시S25 구매고객 최대 10만원 캐시백

신한카드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KT에서 내달 31일까지 'KT 가족만족 할부 신한카드(Master)'로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신한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에서도 최대 10만을 환급해준다. 'LG U+ 스마트플랜 플러스 신한카드'로 단말기 할부를 50만원 이상 결제하고 '폰 교체패스 위드 뉴 갤럭시 Ai클럽'에 가입하면 된다.

휴플러스와 11번가를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먼저 휴플러스에서 개인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0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1번가에서 11페이를 이용하면 최대 16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 비씨카드 페이북 태그 후 결제 쿠팡 최대 1만원 할인

비씨카드의 '페이북' 내에서 직접 태그 후 비씨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할인 혜택은 비씨카드 회원사 발급 카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쿠팡에서 최대 1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자제품을 구매하면 5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

패션 영역에서 맞춤형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크림(KREAM)' 온라인몰에서 비씨카드 20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할인한다. 무신사와 29CM 온라인몰에서는 1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3000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내에서 진행 중인 '빛의 시어터' 관람권을 최대 30% 할인한다. /김정산 기자

# 실적 희비 갈린 3대 지방금융... 올해 목표는 '밸류업'

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조기 시행  
배당 확대 등 통해 주주환원 확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지난해 실적에서 희비가 갈렸다. BNK 금융과 JB금융이 대폭 성장을 기록하며 호실적 거둔 가운데, DGB금융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여파가 올해는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금융은 일제히 '밸류업'을 목표로 제시했다.

9일 각 금융지주사 고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의 지난해 순이익(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1조5010억원(BNK 8027억원·JB 6775억원·DGB 2208억원)이다. BNK금융과 JB금융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지방금융 합산 실적은 지난해보다 1126억원 감소했다.

각 지방금융지주 소속 5개 은행(경남 23%·부산 20.2%·광주 21.6%·전북 8.2%·iM 2%)은 일제히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을 기록했지만, 비은행 부문 실적에서는 DGB금융만 적자를 기록해 희비가 갈렸다. DGB금융의 iM증권은 브릿지론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1년 새 약 1600억원 이상 늘렸다.

DGB금융은 지난해에 부동산 PF 부



BNK금융은 지난해 8027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지방금융지주 가운데 최대 매출이다. 사진은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있다. /BNK금융

실 여파를 대부분 정리한 만큼, 금년도 실적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병규 DGB금융 그룹경영총괄 부사장은 지난 7일 진행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해를 기점으로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끊고 간다는 방침"이라며 "그 방향에 맞춰 전망하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금융지주는 금년도 목표로 '밸류업'을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BNK금융은 실적발표에서 중간배

당금 200원을 포함한 주당 6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에 지난해 순이익의 5% 수준인 4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단기 주주환원을 목표로 30%대 후반을, 2027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지난해 연간 실시한 규모인 330억원 보다 늘릴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주당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최대화해 주주환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퍼스트' 1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GS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서 장기전세주택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를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84㎡, 총 965가구 규모다.

수도권제순환2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동탄호수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3억1600만~3억1920만원 선이다.

롯데건설은 대전 동구 가오동 일원에서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0개동, 총 952가구 중 전용면적 59·74㎡, 39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지원 기자 jiw13@

## 한산한 분양시장... 둘째주 965가구 공급

### 분양 캘린더

설 명절 전후 공급을 계획한 단지가 미진하다. 최근 3주간 분양물량이 3260가구에 불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봄 분양 성수기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청약접수 단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965가구)' 1곳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무하다. 견본주택은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



# 적자 허덕이는 배터리업계... 투자·생산 등 효율성 높인다

국내 3社, 작년 4분기 적자 기록  
운영 효율화 통해 돌파구 모색  
“보수적인 기조로 방향성 조정”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지난해 4분기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리면서 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배터리 기업들은 올해도 투자비 감축과 생산라인 전환 등 운영 효율화에 집중할 전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매출 6조 4512억원, 영업손실 2255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377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영업손실은 6028억원에 달한다.

삼성SDI는 약 7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조 7545억원이며 영업손실은 256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영

업손실은 2816억원이다. SK온 역시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손실이 각각 6조 2666억원, 1조 127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업계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와 배터리 공급 가격하락이 겹쳐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IRA의 보조금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중이다. 이에 업계는 전략적 투자 조정을 통해 불확

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조원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장기화로 수요 변동성이 커진 데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헤 라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투자를 무조건 미루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신규 가동에

정인 스텔란티스와 혼다 조인트벤처(JV) 등은 고객 니즈에 맞춰 런칭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삼성SDI 또한 올해 투자 계획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6조 6000억원을 설비투자로 집행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투자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지난 1월 컴퍼런스 콜에서 “전방 수요가 불확실성이 있고 여러 업체들이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데 당사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투자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기조에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온은 전년 7조 5000억원인 배터리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 3조 5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인다. 포드와의 미국 합작 공장 가동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적의 시점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배터리사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피해를 막기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를 유럽 소재 공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할 경우 캐나다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위한 대책이다.

유럽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점도 국내 배터리사들이 대안 생산기지로 유럽을 고려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지난 1월 30일부터 유럽에서는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 중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금에 ▲EU 차원의 EV 구매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두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유럽 EV 수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정책은 오는 3월 5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시장의 움직임은 배터리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기차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면 기업들도 유럽 내 생산기지 확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항공업계, 화물부문이 실적 좌우... FSC '선도' LCC '추격'

(대형항공사)

(저비용항공사)

FSC, 특화전략 앞세워 급성장  
LCC, 노선 확대 등 경쟁력 확보

국내 항공업계의 지난해 실적에서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간에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행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고환율·고유가 기조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하락세였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화물 분야 특화 전략을 앞세워 전년 대비 상승한 실적을 기록했다. 앞으로 항공업계간 화물 부문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여객과 화물 부문의 성장으로 연간 매출 16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6조 1166억원, 영업이익은 1조 9446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6%, 22.5%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은 1969년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이다.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9168억원)보다 36.8%나 증

가한 1조 2542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국제선 중심의 장거리 노선 공급 확대와 항공화물 운임이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은 1769만 4010명으로 전년보다 26.5% 증가했으며, 국제선 화물 운송량도 160만 4858톤으로 9.5% 늘었다.

반면 LCC 업계는 해외 단거리 노선 경쟁 심화와, 고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FSC에 비해 항공 화물 부문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10일 지난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매출 1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370억원으로 1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티웨이항공도 지난해 매출은 1조 5300억원으로 13%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63% 감소한 510억원을 기록할 것

로 보인다.

LCC업계는 수익성 강화의 돌파구로 항공 화물 사업을 주목하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수요와 홍해 사태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 영향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5일 인천-방콕 노선으로 화물 운송을 시작했다. 이커머스 상품과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류, 과일 등을 주로 수송하며 내달부터 도쿄와 오사카, 타이베이, 상하이, 정저우 노선 등으로 화물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장거리용 대형여객기를 도입함에 따라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벨리 카고 스페이스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벨리 카고 스페이스는 대형여객기 하부의 잉여 공간을 말하며 티웨이항공은 이 공간을 화물로 채워실적을 올리고 있다.

에어프리미아는 지난해 2만 3425톤의 순화물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

8739t)보다 약 20% 증가한 숫자다. 에어프리미아는 지난 2021년 순화물 35톤에서 2022년 6356톤, 2023년 1만 8739톤으로 화물사업 물량을 늘려왔다.

항공화물 운송량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에어포탈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선 누적 항공화물 운송량은 총 419만톤으로 2023년 374만톤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LCC업체들의 운송량은 지난 2020년 1만 8668톤에서 지난해 12만 7342톤을 기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의 경우 매출처가 여객 수요가 아니면 많지 않기에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 등 해외 이커머스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화물 운송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항공사별로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에어컨 신제품 출시

무풍에 쾌적 제습 기능 적용

삼성전자가 2025년형 에어컨 신제품 '비스포크 인공지능(AI) 무풍콤보 갤러리(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에어컨은 무풍 기능과 함께 습도 센싱·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쾌적함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쾌적 제습 기능을 적용했다.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 정도로 건강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기존 에어컨은 열교환기 전체를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냉방 설정 온도가 낮으면 제습 시 실내 온도가 더 추워지고, 설정 온도가 높으면 제습 기능이 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간의 습도에 맞춰 냉매를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열교환기를 필요한 만큼만 냉각해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량도 기존 대비 30% 절감했다.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AI 음성비서 '비스비(Bixby)'와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AI 기능도 탑재했다. 빅스비를 통해 리모컨 없이도 자연스러운 말로 ▲다중 명령 수행 ▲예약 설정 ▲에러 진단과 서비스 연결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사용 시간, 날씨와 냉방 공간의 면적까지 분석해 최적의 냉방과 공기 청정 기능도 포함됐다. 실내의 온도와 공기질을 파악해 하이패스 서큘 냉방 모드와 무풍 모드를 선택한다.

/구남영 기자

# LG “‘그램 프로 AI 스페이스’ 놀러오세요”

내달 30일까지 팝업 스토어 운영  
2025년형 그램 프로 신제품 체험

LG전자가 다음달 3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그라운드220’에서 2025년형 LG 그램 프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램 프로 AI 스페이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팝업스토어 메인 프로그램은 신제품의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이다. 방문객들은 게임에서 신형 그램 프로 주요 기능인 AI 타임트래블, AI 요약, AI 챗봇 등을 활용해 다양한 미

션을 해결하며 제품을 보다 몰입감 있게 경험한다. 그라운드 220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인원 미달 시 현장 접수도 받는다.

방탈출 공간 바깥에는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인텔의 차세대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초경량 AI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방문 인증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이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며 2025년형 LG 그램 프로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LG전자

신제품 15% 할인 쿠폰, 커피 쿠폰, 굿즈 등을 제공하며, 행사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수 리뷰자들

선정해 그램 프로 신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0조 클럽’… 검색·커머스 끌고, 핀테크·클라우드 밀고

(연매출)

## 네이버, 작년 역대급 실적

서치 9.9%↑, 4분기 기준 14.7% 성장  
네이버플러스 확장, 커머스 14.8%↑  
핀테크, 네이버페이 거래액 증가  
클라우드, AI·디지털트윈 효과 반영

올해 온서비스 AI 본격 추진  
이해진 GIO, 이사회 복귀 계획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플랫폼 최초로 ‘연 매출 10조 클럽’에 들었다. 주력 수익원으로 꼽히는 검색 광고에 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의 호조가 큰 역할을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이 연결기준으로 10조73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0%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조9793억 원을, 연간 EBITDA(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영업이익)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2조66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성장한 2조8856억원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7% 성장한 542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생을 위한 온라인 판촉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록했다.

네이버의 이 같은 지난해 실적은 서치플랫폼(검색 광고)부문과 커머스 부문이 실적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핀테크 부문과 콘텐츠 부문이 뒤를 받쳤다는 해석이다. 부문별 실적은 ▲서치플랫폼 3조9462억원 ▲커머스 2조9230억원 ▲핀테크(금융+기술) 1조5084억원 ▲콘텐츠 1조7964억원 ▲클라우드 5637억원 순이다.

서치 플랫폼은 타깃 맞춤형 광고와 포털 화면의 흡피도 도입 등으로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9.9% 느는 데 성공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4.7% 늘었다.

커머스 부문은 현재 대부분의 e커머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8% 늘어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네이버는 커머스 부문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하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커머스의 제휴를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커머스 광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은 초(超) 개인화를 전면으로 내세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개인별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상품과 혜택, 프로모션, 쇼핑 관련 콘텐츠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의 본격적인 수익성은 올 1, 2분기 중 확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핀테크 부문은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세에 따른 네이버페이의 성장과 외부 결제액의 증가로 연간 매출액이 11.3%, 4분기 매출은 12.6% 증가했다. 장기화 한 경기 불황에도 4분기 결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어난 19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부문은 네이버제트가 연결 기준 자회사에서 제외하면서 웹툰 AI 콘텐츠에 연계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앱의 유료 구독자 확대로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7% 늘었다.

클라우드 부문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뉴로클라우드와 라인웍스의 유료 ID 수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의 매출이 높은 성과를 이루면서 연간 매출액은 26.1%, 4분기 매출은 41.1% 성장했다.

네이버는 2025년에도 검색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전사업 분야의 유

기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포부다.

검색 광고 사업은 AI 엔진을 통한 광고 효율의 극대화와 함께 외부 매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커머스 분야는 상반기 중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별도 앱으로 출시해 커머스 부문 이용자의 록인(Lock-In)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에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온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AI 기술 기반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새로운 가치와 사업 기회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커머스에서는 상반기 새롭게 출시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해 검색 중심의 쇼핑 경험을 개인화된 탐색 중심으로 확장해 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네이버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해진 GIO는 2017년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T “3년마다 품질 따지고 협력사 1000개로 확대”

서울서 ‘제10회 파트너스데이’ 개최  
AICT전환 가속, 협력사 순환체계 도입  
“공정·투명한 파트너 선정이 핵심”

KT가 협력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협력사를 연말까지 1000개 정도로 늘리는 한편, 3~5년 주기로 품질을 검사해 협력사 경쟁을 촉진한다.

KT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개최된 ‘제10회 KT 파트너스데이’에서 이같은 협력사 순환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이번 변화로 외부 우수 공급사 진입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 번 KT 협력사가 되면 현장은 용편이나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교체하지 않아 새로운 협력사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내부 평가다. 3~5년 주기는 분야별 특성을 고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부장(부사장)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개최된 제10회 KT 파트너스데이 2025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

려해 결정된다.

기존 협력사 분류 체계도 AICT에 맞게 변경된다. 기존에는 협력사를 SW 개발, 물자, 공사, 용역으로 나눠 관리했지만, 앞으로 SW 개발은 AI·IT로 변경해 오픈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에 따라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모든 기업이 협력사로 선정될 수 있다.

KT 구매혁신담당 김대희 상무보는 “지난해 협력사가 400개 정도였는데, AICT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업간거래(B2B)쪽 AI·SW 협력사를 늘려 현재 800개 정도”라며 “이 추세로 보면 연말에는 1000개 정도로 예상된다. 단순 숫자보다는 KT 사업을 잘할 역량이 있는 파트너를 공정·투명하게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T는 구매원칙 정립과 관련 참고자료를 그룹 구매 가이드로 배포한 상태다. ▲각 그룹사 모든 구매는 구매부서 관리에 따라 운영 ▲모든 계약은 경쟁이 원칙 ▲협력사 선정은 투명하게 하고 절차 외 임의선정 금지 ▲관계 법령 준수, 업무분리 확립 등이 4가지 원칙이다.

또 현재 흩어진 개별 구매 시스템을 통합해 차세대 구매 플랫폼으로 단일화

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다 보니 다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봤다.

여기에 AI를 반영해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구매품목이 많은 커머스의 경우 AI 기반으로 적정 예상 구매가를 산정한다. 이달 중 관련 베타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베타 버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그룹 전체에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 기반 AI 모델도 검토 중이다. 김 상무보는 “MS와 클라우드 또는 AI 모델을 상호 협력 아래 어떤 서비스에 도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MS가 제공하는 AI 모델이 KT가 요구하는 구매 AI 기능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MS 제품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다른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유플러스 직원이 카날플러스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U+

IPTV서 유럽 ‘카날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제공

LG유플러스는 유럽 최대 미디어 사업자인 카날플러스 산하 제작사 스튜디오 오카날과 손잡고 최신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카날플러스는 52개국에서 직접 콘텐츠 투자·제작·배급 등 전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다수의 글로벌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카날플러스 자회사인 스튜디오오카날은 영화·방송프로덕션을 갖춘 전문 제작 스튜디오다.

LG유플러스는 U+tv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카날플러스·스튜디오오카날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U+tv에 독점 제공되는 콘텐츠는 카날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 등 약 188편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U+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로는 ▲영화로 알려진 헤즈 폴른의 첫 TV 시리즈인 ‘파리 헤즈 폴른’ ▲석유고갈로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미래를 그린 ‘폴랩스’ 등이 있다.

/구남영 기자

## 갤S25 시리즈 사전예약 5명 중 1명 ‘AI 구독클럽’ 가입

삼성 2030 젊은층 가입 비율 60%  
최신 기기 선호·구독 모델 수용성 높아

삼성전자는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자급제 사전예약 고객 5명 중 1명이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닷컴에서 구매할 자급제 단말기 구입자 30%는 뉴 갤럭시 AI 구독클

럽을 선택했다. 이 서비스는 1년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50%, 2년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40% 잔존가 보장과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자의 60%는 2030의 젊은 층 고객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030 젊은 고객층은 최신 IT 기기에 관심이 많고 ‘구독’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에 대

한 수용성이 높으며, 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가 빨라 1년마다 최신 갤럭시를 마음껏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부담없는 가격에 최신 제품의 혁신 기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향후 스마트폰 구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뉴 갤럭시 AI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들이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 후 플래그십 중고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모습. /삼성전자

구독클럽’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중고 스마트폰 반납 혜택을 강화한다. /구남영 기자




**MONTES**  
 PRIDE IN WINEMAKING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트럼프 수혜’ 로봇株, 적자에도 평균주가 98.42% 급등

(연초 대비)

트럼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목’ 美 제조기업 자동화기 도입 가속화  
레인보우로보틱스, 6거래일 상승밸리  
클로봇, 하루 만에 주가 15.97% 올라  
재무상태는 ‘적자’... 투자 시 유의

연초 국내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알앤엠 등 로봇 관련주의 평균 주가는 연초 대비 98.42% 급등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로봇 산업 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잡히고 있어 로봇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7일 6거래일 연속 상승밸리를 기록하며 41만500원(+9.61%)에 장을 마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이 가장 많이 순매수(약 735억4666만원)한 코스닥



레인보우로보틱스 협동 로봇 RB 시리즈 제품 라인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시가총액은 7조 4000억원까지 상승해 코스닥 상장사 중 5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로봇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다.

로봇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 제조 기업이 자동화 기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로봇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이에 지난해 10만원대에 담보 상태로 머물러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편입 결정 이후 지난달 30만원선을 넘어서더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4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0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및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로봇 도입이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가 될 것”이라며 “사람 형태를 모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건 운반과 정리·위험물 처리·구조 활동 등 일반 로봇에 비해 쓰임새와 잠재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플랫폼인 로봇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신 로봇 연구진이 2017년 설립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클로봇은 지난 7일 하루 만에 15.97% 상승(증가 19만100원)하며 2만원선 안착을 노리고 있다. 클로봇 역시 지난해 12월초 5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됐던 기업으로 연초에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업체 하이젠알앤엠은 연초 대비 199.63% 상승하며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해당기업들의 재무상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 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하이젠알앤엠도 같은 기간 매출액은 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상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등 기술 기대감은 높아지나, 상용화해 판매되고 있는 로봇 등은 전방 수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기대와 현실 간 괴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용화된 로봇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딥시크·오픈 AI 제휴 기대감... 5거래일간 26.71% ‘쑥’

metro 관심종목

카카오

저비용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과 오픈AI와의 제휴 기대감으로 카카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카카오그룹 전반에 투심이 물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가는 1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5거래일 만에 26.71% 올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방한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다. 카카오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다만 7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77% 떨어지며 상승 피로감으로 인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를 1744억원 순매수했으나, 지난주(2월 3~7일)에는 418억원을 순매도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이후 주가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개미무덤’으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AGI 목표로 양사 포괄적 개발 가능성  
기업가치에 탄력적 상승여력 부여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에도 영향

불렸던 만큼 반등 국면에 빠져나간 신호로 보여진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주가는 2022년 3월보다 63.61% 떨어진 상태였다.

카카오의 주가 기대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구 키움증

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오픈 AI의 제휴는 빅테크 바게닝 파워가 주요 이해관계자 대비 줄어들면서 관련 에코시스템 내에서 기업간거래(B2B)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포괄하는 사용자 데이터 기반 업체를 포섭하려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발현된 결과”라며 “향후 인공지능(AI)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에 구동경제 기반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서비스 개발에 양사가 포괄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제휴 수준은 이용자 데이터 기반 협력이나 지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법인 설립 등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성사된다면 카카오 기업가치에 탄력적인 상승 여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이를 반영, 목표주가를 기존 4만 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오픈AI와의 제휴 효과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주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8.49%, 카카오페이는 18.70%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그룹과 오픈AI의 동맹이 당장 카카오뱅크에 영향은 없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자체 추진 중인 자연어 기반 금융 계산기 등 AI네이티브뱅크 전환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실적 성장세도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31.3% 상승한 2182억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금감원 영문 DART 개편 추진 외인 투자자 접근성 ↑

금융감독원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법정공시 주요항목을 영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편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공시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활용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단계적 다트 영문공시 확대 방안 2단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자의 영문 다트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번 영문 콘텐츠 확대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신규 제공으로 영문 다트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문 다트 접속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589건에서 2023년 3만9079건, 지난해 7만887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문 다트 공시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영문 조회 기능도 최적화한다. 기존에는 회사명뿐만 아니라 검색이 가능했으나 국문 다트와 동일하게 보고서명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영문 보고서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제시된 보고서명을 선택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선택 기능’도 신설된다.

영문 공시 관련 공모 정보 제공 방식도 한층 개선된다. 공모계시판을 통해 지분·채무·파생결합증권 등의 청약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며, 발행회사 및 청약일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월별 청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 달력’ 기능과 주식·채권 관련 모집·매출 실적 정보도 영문화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신설해 주요 공시정보 83종을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활용해 공시 원문(XML, JSON)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 금감원, ETF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강조 ‘지적’

금융감독원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광고들은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10곳이 집행한 252건의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미실현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절 사례는 ▲예상·목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처럼 강조한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을 기재한 경우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분배금만큼 순자산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성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2팀 국장은 “ETF 상품 투자 시 특정 기간의 성과만을 보고 투자 여부

를 결정하지 말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저’, ‘최초’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기준일과 비교범위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 상품은 코스피, 코스닥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라도 수수료에 따라 장기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 국장은 “ETF 투자 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용보수, 기타비용 등 수수료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 식품업계, 매각·철수로 수익개선 글로벌 확장 등 경영 효율화 나서

**롯데월드푸드** 제빵 증평공장 매각  
인도 통합법인 설립, 글로벌 확장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매각 추진  
글로벌기업 인수 등에 자금 쓸 듯  
**SPC** ‘피그인더가든’ 매장 정리중  
편의점·마트 등 리테일 사업 집중



챗GPT가 생성한 식품업계 합병 관련 이미지.

식품업계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매각·철수카드를 빼들었다. 수익 창출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하고 매각 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 는 모습이다.

롯데월드푸드는 지난 7일 신라명과와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 위치한 제빵사업부 증평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증평공장 매각은 자산 효율화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월드푸드는 지난 2022년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합병해 출범했다. 롯데월드푸드는 합병 후 제빵, 빙과 등 일부 중복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산 설비 효율화와 생산 품목 조정 등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증평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운휴 상태에 있었다.

롯데월드푸드는 이번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을 글로벌 사업 확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롯데월드푸드는 인도 통합법인 설립, 빼빼로 라인 설비 투자 등 글로벌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2200억원을 투입해 천안 빙과 공장을 증축 중이다. 2026년 증설이 완료되면 국내 최대 빙과 공장이 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월드푸드는 2023년 빙과 영업장과 물류센터를 통합하고 매가 브랜드 강화를 위해 비효율 품목을 축소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그린바이오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

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다시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투자은행 업계는 CJ제일제당의 그린바이오 사업부 매각금액을 5~6조 수준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사업을 매각해 해외 투자나 글로벌 식품기업 인수합병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을 비롯해 호주 등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오 매각설이 나왔던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이 헝가리와 미국에서 8000억원 규모 신규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에는 CJ헬스케어를 매각한 자금으로 미국 냉동식품기업 ‘슈완스’를 인수한 바 있다.

SPC그룹은 샐러드 브랜드 ‘피그인더가든’의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는 추세다. SPC는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에 피그인더가든 첫 매장을 열고, 코엑스·광화문·강남 등 7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최근까지 여의도점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을 종료한 매장은 강남·광화문·선릉·코엑스점 등이며, 올해는 여의도점을 철수했다. 현재는 편의점과 할인마트, 쿠팡·컬리 등 온라인 판

매처 20여 채널에서 약 70종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SPC는 피그인더가든의 판매 채널 효율화 작업을 통해 편의점·마트 등 리테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피그인더가든 리테일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편의점·온라인 샐러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신세계푸드도 부진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둔 사업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던 ‘노브랜드 피자’ 정보공개서를 취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외식 피자 사업 철수 과정의 마무리 수순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대치동 1호점을 시작으로 노브랜드 피자 사업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은평점·역삼점·서울대입구점 등 직영점 매장 3곳을 추가로 낸 뒤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았다. 신사업 테스트 이후 시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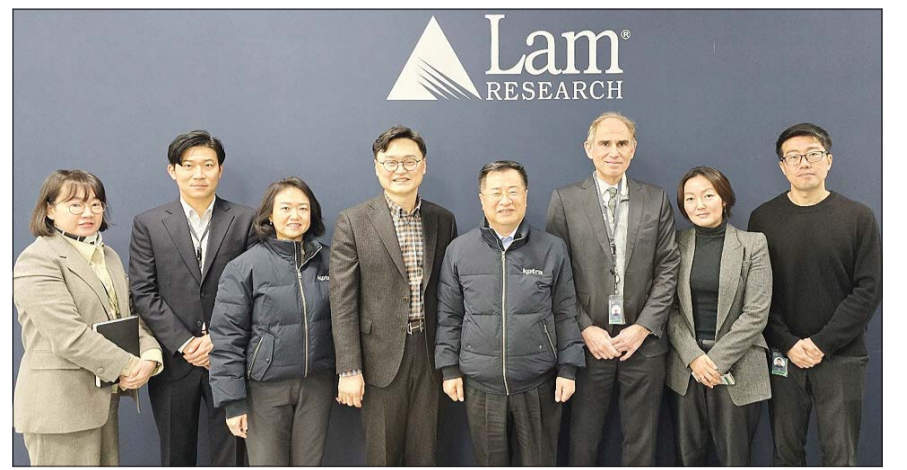
올해 10월에는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 프랜차이즈 사업을 종료한다. 2015년부터 한국 사업권을 획득해 운영한 스무디킹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스무디킹 매출은 2021년 92억원에서 2023년 61억원으로 줄었다. 매장 수는 2021년 305개에서 2023년 169개까지 감소했다. 현재는 약 90곳만 운영 중이다.

신세계푸드는 장기적으로 대안식품 사업을 키울 방침이다. 현재 대안식품 브랜드 ‘유아맛유이’를 운영중이며 향후 대안식품의 제품개발력을 높이고 대안식품을 포함한 푸드테크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강경성 코트라 사장(왼쪽5번째)이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외투기업 램리서치코리아를 방문해 박준홍 대표(왼쪽 4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코트라

## “외투기업 한국경제 신뢰, 투자흐름 견조”

강경성 코트라 사장  
용인 램리서치코리아 본사 방문

“국내의 투자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한국 산업의 저력과 성장성을 신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어 투자흐름은 견조한 편이다”

강경성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지난 7일 국내 외국인 투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램리서치코리아는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 등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 모기업인 미국의 램리서치는 1980년 설립했으며, 전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지난 1991년 한국에 진출해 경기도 용인, 화성, 오산 등에서 기술지원, 연구개발센터 및 장비 생산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고용 규모는 총 2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용인에 한국 본사와 연구개발 시설인 테크놀로지센터, 트레이닝 센터를 통합·확장한 ‘용인캠퍼스(Y Campus)’를 준공하는 등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국내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AI의 확대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강 사장은 “한국 산업 경쟁력에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2023년 기준 수출의 20.8%, 고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취약한 기술을 해외 첨단기업 유치로 보완하는 기능도 있어, 국내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외투기업의 긍정 효과가 크다.

올해 1월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액은 13억50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평균 1월 투자신고액 12억6000만달러를 넘어 서고 있다.

강 사장은 “한국의 긍정적 투자환경을 지속 홍보하고 투자관련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경제성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규제샌드박스 R&D 신설, 3년간 24억 투입

산업부, 시장성 확인 기술 개발지원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모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최대 3년간 연간 8억원 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떡볶이·치킨 등 매월 5~6%씩 올랐다

통계청, 작년 하반기 서민음식 가격  
전체 물가상승률 1.3~2.6% 웃돌아

주요 패스트푸드·서민음식·분식 값이 지난해 하반기 매월 5~6%대(전년동월 대비)의 상승 폭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올해 첫 달인 1월에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보였다. 또 1년 전과의 비교에 더해 전월 대비로도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

9일 통계청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국내 평균 떡볶이 가격은 지난해 7월(+5.9%)과 8월(+5.7%)에 1년 전보다 5% 오른 뒤 9월(+6.2%)과 10월(+6.2%)에 6%대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5.6%, 5.7%, 5.4% 상승했다.

햄버거의 경우 작년 7월(+4.7%)보다 8~10월(3개월간 각각 +5.5%)에 상

승세가 커졌다. 이후 11월(+4.1)에 주춤했으나 12월(+8.3%)과 올해 1월(+7.7%)에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뛰었다.

이 밖에 치킨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각각 5.2%, 1월에 4.9% 올랐다. 김밥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각각 5% 넘게 오른 뒤 11월 +4.9%, 12월 +4.8%, 1월 +4.7%를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서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떡볶이는 매월 0.2~0.7%, 치킨은 0.1~0.8%, 김밥은 0.2~0.5% 올랐다. 햄버거 값은 주로 가격 동결이었으나 8월(7월 대비 +0.8%)과 11월(10월 대비 +1.4%)에 크게 뛰었다.

이 같은 패스트푸드 및 서민음식의 가격 상승은 전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12월 기간에 전년동월 대비로 1.3~

2.6%에 자리했다. 올해 1월에도 2.2%로, 햄버거·떡볶이 등의 5%대 상승률의 절반 미만 수준이다.

식품업계는 환율 및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을뿐더러 이상기후로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 자체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 실질 임금(물가를 반영한 임금) 오름폭은 매우 더디거나 둔화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자 실질임금은 지난해 7월에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한 뒤 8월 2.0%, 9월 1.6%, 10월 1.3%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이어 11월에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WTO 기술규제 598건 ‘역대 최고’

〈세계무역기구〉

## 친환경차·식품·전자제품 규제 급증

산업부 “무역기술장벽 증가세 지속”  
美, 78건 통보, 전년대비 2배 증가  
식의약품 63% ↑ 라벨링·시험법 강화  
개도국 규제 확대··· EAC, 식품 중심

연초부터 각국의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 규제가 가장 많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월 598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해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들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에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 규제가 통보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전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7년 만에 인상

농식품부,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 확대

정부가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가속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가 친환경직불금 개편에 나선 것은 7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비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후 농가는 유기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지속 57만 원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 단가의 60%, 유기전환 단가는 무농약 단가에서 유기단가로 변경한다.

지급상한면적을 확대(호당 5ha→30ha)하고,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친환경인증을 유지 시 지급하던 현행 제도가 신규농은 당년 5

월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후 10월까지 인증 유지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 신규 친환경 비를 일반 비 대비 5%포인트(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t)한다. 비는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 일반 비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비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근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 15만t 매입 시 친환경 면적 3만 3000ha 증가, 쌀 생산량 2만 2000t 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규 친환경 비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친환경 비 농가가 당해연도에 친환경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농업 직불 사업기간을 기존 친환경 농가와 별도로 운영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노사발전재단

韓, 해외진출 기업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노사발전재단은 해외 진출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 왔다.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돼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발간된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해외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법령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무관리 전략이 포함됐다.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 사전 등을 포함해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최근 미국으로의 기업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가 새롭게 발간됐으며,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도 함께 출간됐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정리한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도 포함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 농촌협약 지원 규모 확대 시군별 400억으로 늘린다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

정부가 농촌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 규모를 내년에 4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전용 절차 간소화 등 농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및 난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한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충남 예산의 한 농가를 찾아 과수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0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농식품부, 올해까지 60% 폐업 전망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6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가량(938호)이 폐업할 전망이다이라고 9일 밝혔다.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분야 전공 대학생 역량 강화 교육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측정분석·진로탐색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과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 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측정·분석 이론 강의와 함께 시료 채취 및 분석 장비 활용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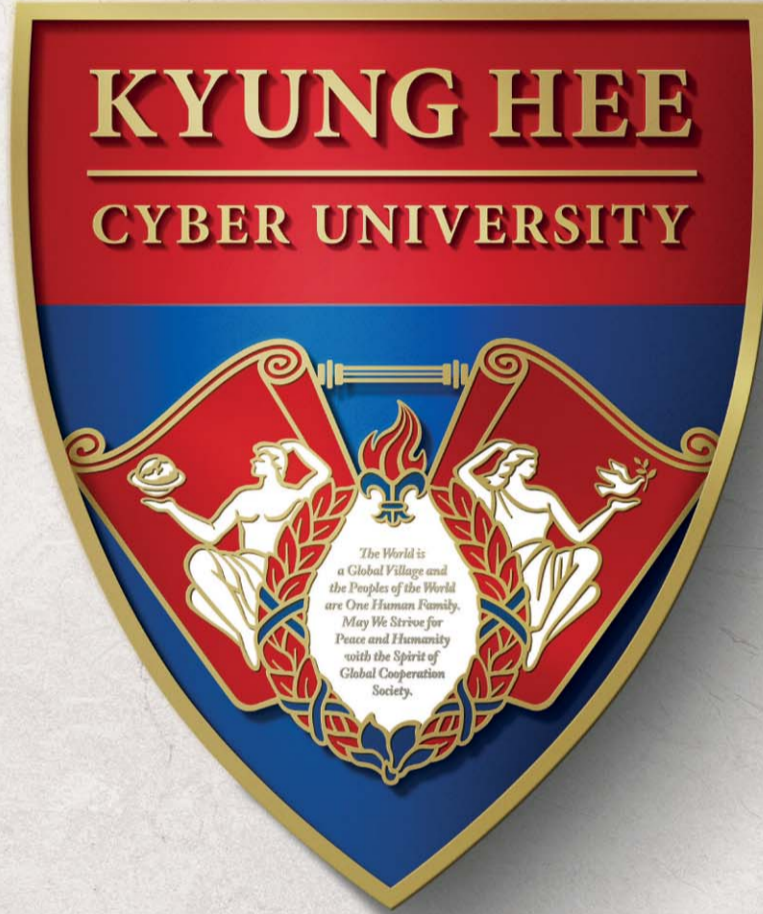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환경전문업체 소속 현직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학사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직접 활용할 기회도 제공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운영돼 환경 전공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에서는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마련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임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환경업계의 주요 업무와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경이로운 변화, 희망찬 미래



<p><b>교육부가 인정한 최우수 사이버대학교</b> 개교 이래 언제나 교육부 평가 1위(2007, 2013, 2020)</p>	<p><b>K-BPI 사이버대학 부문 9년 연속 1위</b>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p>	<p><b>4년제 정규 학사 취득을 100% 온라인으로</b> 명문 석학 교수의 100% 온라인 수업 진행</p>
<p><b>신·편입생 장학금수혜율 98.2%</b> (2024학년도 1학기 기준)</p>	<p><b>경계 없는 캠퍼스 라이프</b> 축제부터 지역학습관, 현장실습까지</p>	<p><b>다양한 경희동문 혜택</b> 경희대 캠퍼스 및 도서관 이용, 학점교류, 의료비 감면 등</p>

## 경희사이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 일정**      1차: 2024.12.01.(일) ~ 2025.01.14.(화)      2차: 2025.01.27.(월) ~ 2025.02.14.(금)

| 모집전공 :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계열 |

IT·디자인융합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b>신설</b> 스포츠학부	세무회계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경영전공	자산관리학부
AI사이버보안전공	사회복지전공	<b>신설</b> 스포츠지도전공	금융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노인복지전공		부동산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아동·보육전공	실용음악학과	
재난안전학부	상담심리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소방방재전공	일본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안전공학전공	중국어문화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외식조리경영학부
<b>신설</b> 전자정보공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외식경영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국어문화학부	<b>신설</b> AI·빅데이터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한방건강관리학과	한국어교육전공	글로벌경영학과	<b>신설</b> 글로벌자율학부
후마니타스학과	이민·다문화전공		

| 지원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80%) + 인성검사(20%)    | 입학지원센터 | go.khcu.ac.kr    | 상담전화 | 02-959-0000

# “대기업 취업보다 의대”... 계약학과 정원 1.8배 ‘등록포기’

5개 반도체계약학과, 138명 등록 안 해 한양대, 정원 대비 포기율 360% 의과대학·서울대 동시합격에 이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5개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정원 1.8배에 달하는 인원이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생들이 의과대학 등 상위권 학과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올해 의대 증원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분석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5개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모집정원 77명 대비 179.2%에 달하는 138명이

〈2024학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자 미등록 현황〉

계약기업	학교명	모집군	학과명	정시 등록 포기		
				모집	최종 추가합격	모집인원대비 비율
SK하이닉스	고려대학교	가	반도체공학과	10	10	100.0%
	한양대학교	나	반도체공학과	10	36	360.0%
	서강대학교	나	시스템반도체공학과	10	14	140.0%
소계				30	60	200.0%
삼성전자	성균관대학교	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2	13	59.1%
	연세대학교	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5	65	260.0%
	소계				47	78
합계				77	138	179.2%

/종로학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합격자 전원은 물론, 추가합격자 중에서도 최종합격자 79.2% 규모가 평균적으로 등록을 포기한 셈이다. 5개 반도체 계약학과에 2025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7.30대 1이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 3곳은 29명 모집에 284명이 지원해 9.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삼성전자 계약학과 2곳은 5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해 5.86대 1

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에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의 경우 모집정원(30명) 대비 200%에 달하는 정시 합격자(이하 추가합격 포함) 60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0명 모집정원 중 36명이 등록 포기로 인한 정시 추가 합격이 발생해 정시모집 정원 대비 포기율(360%)이 가장 높았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정원에 140.0%에 해당하는 14명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모집정원인 10명 만큼의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성균관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모집인원(47명)의 166.0%인 78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집

인원(25명)의 260%에 해당하는 65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도 모집인원(22명)의 59.1%인 1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한 합격자 대부분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이나 서울대 이공계 학과에 동시에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계약학과 이탈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관련 기업들의 경기 상황도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약계열, 대기업 계약학과 중복합격 시 선호도 측면에서 의약계열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특성화·마이스터고 충원율 늘었다

충원율 94.65%... 전년비 2.44%p↑ 학령인구 감소에도 직업계고 지원 늘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산업군 인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지역 특성화고와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1만234명 모집에 1만2111명이 지원해 총 9686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94.65%로 지난해 92.21%보다 2.44%p 올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관내 고교 입학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지난 2023년 7만3018명에서 2024년 6만

8524명으로 7만명대가 무너진데 이어 올해 6만3924명으로 지속해 줄고 있지만, 직업계고 지원자는 늘어났다.

학교별로 보면, 마이스터고 4곳은 558명 모집에 824명이 지원해 지원율 147.67%를 기록했으며, 이중 565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101.25%로, 2년 연속 100%를 넘겼다.

특성화고 67곳은 모집정원 9676명에 지원자는 1만1287명이다. 지원율은 116.65%로, 9121명이 최종 합격했다. 충원율은 94.26%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2.53% 상승했다.

또한, 일반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6곳은 1352명 모집에 지원자가 1786명 몰렸

다. 지원율 132.10%를 나타낸 가운데, 1229명이 합격해 충원율 90.90%를 보였다.

올해 지원을 상위에 속하는 산업군(교과군)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34.4%) ▲식품·조리(11.7%) ▲경영·금융(10.4%) ▲미용·관광·레저(10.2%) ▲정보통신(9.4%) 등 학생 소질과 적성에 따른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교 개편과 재구조화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및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중앙대-던필드그룹, 산학협력 연구 ‘맞손’

경영인·패션전공 인재 양성 등 협력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6일 201관(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던필드그룹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산학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대학 교육 특성화에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서순희 회장을 비롯한 던필드그룹 관계자들과 박상규 총장, 이형환 단번치캠퍼스부총장, 김승일 예술대학 학장, 김영삼 패션전공 교수와 채무석 산학협력단 교수,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등 중앙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피에르가르맹의 로드리고 바실리카티 가르맹 CEO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맹이 주최한 ‘2024 영디자이너 어워드’에서 수상한 패션전공 최예원 학생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와 던필드그룹은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경영인 양성, 패션전공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연구과제 ▲연구인력 방문 등 인력교류 ▲심포지엄·세미



중앙대학교와 던필드그룹의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에서 박상규 중앙대 총장(왼쪽)과 서순희 던필드그룹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앙대

나 등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간행물 교환 ▲공모전·특강·인턴십 등 취업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순희 회장은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장 학습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향후 인재 양성 과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이번 협약이 예술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최고의 패션기업과 협력해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대학과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 상명대학교 예비 신입생 대상 ‘상명프레쉬’ 성료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6일 서울 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상명프레쉬’ Pre SangMyung 상상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상명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 상명프레쉬는 2025학년도 서울캠퍼스 수시전형 합격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 예비 신입생들의 전공교육기반 창의융합 능력 및 융복합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김민호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의 개회사 및 상명대 비교과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참가자 팀 빌딩과 트리즈싱킹 창의적 문제해결 특강에 이어, 팀별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 등이 이뤄졌다.

김민호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기회를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해 결과를 쟁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IITP 정보보호 우수과제 선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영갑 교수 연구팀, 표창장 받아

세종대학교(총장 임종화)는 김영갑 정보보호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수행 중인 ‘공공 인프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 보안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과제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4년도 정보보호 분야 우수과제로 선정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표창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영갑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 보안 영상처리 기법과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수행 결과, 지난 6년간 SCIE 논문 41편(JCR 게재 연도 기준 IF 상위 2% 이내 8편, 상위 10% 이내 총 18편, 상위 30% 이내 총 27편)을 포함해, 특허 출원 33건(국제 7건, 국내 26건) 및 특허 등록 12건(국제 3건, 국내 9건)을 진행하고 국내외 핵심 특허를 확보했다.



김영갑 교수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ISO/IEC 국제표준 1건을 제정했다.

김영갑 교수는 “이번 기술 개발로 사이버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측 및 처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시놉시스 추출, 접근제어, 암호화 기술을 보안 영상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안 기술로 활용하고, 공공 인프라 기반 시설의 CCTV 영상 관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갑 교수는 입 과제를 통해 개발한 상호운용 기술, 인공지능 기반 영상 시놉시스 생성 및 영상 암호화 기술을 제품화하고자 지난해 9월 인도퍼(NTOPER) 기업을 창업했다. /이현진 기자

## 사이버한국외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대학 홍보 서포터즈 재학생 참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장지호)는 대학 홍보 서포터즈 소속 재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개포동 구름마을 주민들의 혹한기 추위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을 통해 연탄 구매와 배달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이버한국외대 홍보 서포터즈 ‘구베’ 2기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이날

아침 구름마을에 모여 마을 내 가구로 연탄을 직접 날랐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입춘이 다가왔음에도 기승인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해 2004년 개교한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이다.

/이현진 기자



# 화장품 정리함부터 LED조명까지... '화장대테리어' 확산

〈화장대+인테리어〉

## 카카오스타일

관련 상품군 거래액 104% 증가  
화장품 정리함 매출 371% 상승  
조명 533%, 정리대 274% 급증

책상을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열풍이 화장대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화장대를 인테리어 요소로 꾸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새해맞이 집 꾸미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1030 여성을 중심으로 '화장대테리어(화장대+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데스크테리어(데스크+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장된 형태로,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한 1030 세대의 개성 중시 소비 성향과 맞물려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화장대·조명·화장품 정리함 등 관련 상품군의 검



옛지영의 '뚜껑있는 냉장고형 화장품 정리함', 루시아의 '심플 접이식 LED 조명 거울', 엘로롱키 '이동식 모듈 트롤리' 상품. /카카오스타일



색량과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화장대의 검색량과 거래액은 각각 146%, 104% 증가했으며 화장품 정리함은 148%, 371% 상승했다. 또한, 화장대 조명과 이동식 화장품 정리대(트롤리)의 같은 기간 거래액이 각각 533%, 2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30 여성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대표 인기 상품으로는 인

테리어 소품 브랜드 '옛지영'의 '뚜껑있는 냉장고형 화장품 정리함'이 있다. 이 제품은 대용량 냉장고 형태로 제작돼 실용성을 강조하며, 화장품 종류에 맞춰 최적화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인테리어 브랜드 '루시아'는 '심플 접이식 LED 조명 거울'을 인기 상품으로 선보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컬러 및 밝기 조절이 가



능하며, 스탠드형 접이식 구조로 제작돼 원하는 장소에서 세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리츠 디자인의 바구니와 단단한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제작된 엘로롱키의 '이동식 모듈 트롤리'도 인기 상품군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화장대테리어'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개성을 중시하는 1030 세대의 소비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뷰티 유

튜브와 브이로그에서 다양한 형태의 화장대 연출이 소개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대는 뷰티 유튜브 콘텐츠와 브이로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요소"라며 "실제 1030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패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스크테리어'에 이어 '화장대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업계가 화장품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뷰티 제품 수요가 늘자, 관련 시장인 뷰티 가구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소비자 김 모 씨(29)는 "최근 새해나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화장품 세일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관련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며 "그렇게 화장품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 이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정리함이나 수납 제품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쿠팡, 동계아시아게임 집관족 기획전

### '대한민국 응원을 위한 슈퍼 세일' 가전·디지털 기기에 간식도 준비

쿠팡이 대한민국 스포츠팀의 선전을 지원하며 이달 13일까지 '대한민국 응원을 위한 슈퍼 세일' 기획전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집에서 동계 스포츠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제품군은 물론, 겨울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데 필요한 여행 상품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가장 먼저, 집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전·디지털·응원 용품 코너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LG 올레드 4K 초고화질(UH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TCL 안드로이드12 퀀텀닷(QD)-미니 발광다이오드(LED) 4K TV ▲LG전자 2025 그램 등 상품이 포함됐다. 또한, 응원봉, 머리피, 태극기 등 다양한 응원 용품도 준비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간식 및 식탁 차림 코너도 운영한다. ▲잭링크스 비프 스틱 오리지널 육포

▲구룡포 건조 반건오징어 ▲붕지 과자 20종 세트 등을 포함해 즉석식품, 밀키트, 무알콜 맥주, 마른안주류 등 식품을 선보인다. 술잔, 테이블, 의자 등 식탁 차림에 필요한 상품도 함께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대한민국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동시에 직접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남은 겨울 동안 쿠팡과 함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 GS리테일, 소포장 냉동 간편식 출시

오리지널 핫도그·불고기버거 등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고물가에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겨냥해 '소포장 냉동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GS더프레시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기존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대용량·묶음 구성과 달리, 날개 포장 형태로 출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GS더프레시 측 설명이다.

출시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 구성됐다. 출시 일정은 핫도그와 피자가 이달 11일, 햄버거 2종이 이달 18일이다.



GS더프레시에서 브랜드 관계자가 신상 냉동 간편식 상품을 들고 있는 모습. /GS더프레시

특히, 냉동 핫도그는 일반적으로 5~6개입 묶음으로 판매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출시됐다. 햄버거는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제품군으로 새롭게 기획했다. 피자 역시 1인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7인치 크기로 줄였으며, 2개를 개별 포장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CU, 밸런타인데이 맞아 '주류 할인전'

200ml 양주 3종 40% 가량 할인

편의점 CU는 다가오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 가족간 달콤한 분위기를 즐기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대규모 주류 할인전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밸런타인데이는 연중 편의점 매출이 가장 높게 뛰는 행사 중 하나로 기념일을 맞아 초콜릿 등 선물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주류의 매출도 덩달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작년 CU의 밸런타인데이 기간 전체 주류 매출을 살펴 보면, 행사 기간 일주일(2월8~14일)만에 전주 대비 매출이 35.3%나 증가했다. 카테고리별로는 양주가 51.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와인 37.0%, 전통주 26.9%, 기타 주류(하이볼 등) 15.6% 늘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CU는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다양한 주류 할인전을 준비했다. 먼저 이달 14일까지는 발렌타인 양주 7종을 할인 판매한다. 200ml



편의점 CU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대규모 주류 할인전을 펼친다. /BGF리테일

소용량 발렌타인 양주 3종(발렌타인 7년, 10년, 파이니스트)은 정가 대비 최대 40% 가량 할인해 업계 최저가인 7900~9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주류와 초콜릿을 결합한 프로모션들도 진행한다. 달콤한 포트 와인은 페레로로쉐 5입과 함께 구매하면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행사 상품은 포르투갈산 포트 와인 중 인기 제품인 발도우로 포트 와인 2종이다.

또, CU는 최근 사케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밸런타인데이에 처음으로 사케 기획전도 준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신세계백화점 스마트가전 마케팅 강화

신세계백화점이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스마트 가전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즐기는 50~60대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가전 제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그중 로봇청소기·식기세척기 등 모바일 원격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전 매출이 159%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시니어 고객층의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30세대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1.5%인 반면,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같은 기간 218.7% 증가했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0일 본점 신관 7층에 로봇 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의 정규 매장을 오픈한다. 매장 오픈을 기념해 로봇청소기 및 습식청소기 제품을 최대 25만원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안재선 기자

## 현대그린푸드, 구내식당 혼잡도 실시간 확인

전용 앱 'AI 피플카운팅' 제공

현대그린푸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도입하며 단체급식업계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AI 기술을 활용해 구내식당 혼잡도를 자동 측정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AI 피플카운팅'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AI 피플카운팅은 구내식당 입구에 설치된 AI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인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현대그린푸드의 구내식당 정보 알림 앱 'H-카페테리아'로 혼잡도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개발은 그룹 내 ICT 전문기업 현대퓨처넷이 담당했다.

특히 5개 이상 복수 코너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혼잡도 현황도 동시에 파악해 알려줄 수 있어 고객사 직원들은 앱을 통해 대기줄이 적은 코너를 선택해 배식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코너별 잔여 수량 확인, 좌석 현황 알림 등의 추가 기능을 개발해 H-카페테리아 앱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구내식당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단체급식 사업뿐 아니라 전 사업분야에서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식품업계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셀트리온, 짐펜트라 연구성과 입증... 글로벌 신약 처방 박차

3상 장기 사후분석 등 성과 공유  
‘증량 투여’ 유효성·안전성 확인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 기대감



‘CT-P13 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세계적 수준의 국제 학술 대회에서 자체 개발한 신약 짐펜트라 이후 연구성과를 공유하면서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6~8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에서 피하주사 제형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T-P13 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 글로벌 3상 장기 사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셀트리온이 102주에 걸쳐 추적한 장기 연구 중 ‘증량 투여’에 관한 결과다. 셀트리온은 크론병(CD) 환자 192명, 궤양성 대장염(UC)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CT-P13 SC’ 용량을 기존 120mg에서 240mg으로 늘린 증량 투여 환자와 비증량 환자 간의 유효성,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22주 시점 이후 증량 투여 한 환자들은 102주차에 증상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적 관해와 임상적 반응 및 내시경적 반응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유효성 측면에서 대다

수의 환자에서 증량 후 8주 이내에 보다는 약물 효과가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비증량군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새로운 안전성 우려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CT-P13 SC 유지 요법 용량을 증량하는 변경허가를 허용하기도 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CT-P13SC 단독 투여와 면역억제제 병용 투여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도 공개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CT-P13SC 단독 투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병용 요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블록버스터 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지속 밝혀 왔다.

짐펜트라가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 시장은 12조8000억원 규모로, 셀트리온은 올해까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최소 10% 이상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짐펜트라는 지난해 3월부터 미국에서 염증성장질환 신약으로 발매됐다. 이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제품

출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직접 판매 활동을 펼치는 등 짐펜트라는 빠르게 미국 시장에 안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대형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3곳에서 운영하는 6개의 공·사보험 전체 영역에 등재되기도 했다. 미국 전역에서 TV광고까지 송출되면서 짐펜트라는 처방의, 보험사, 환자 등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이해관계자 모두를 공략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짐펜트라 매출은 두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짐펜트라 매출은 각각 22억원, 64억원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현재 미국 보험 시장에서 90% 이상의 커버리지를 확보한 만큼 향후 보험사 환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매출 성장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넥슨, ‘블루 아카이브’ 日 장기 흥행... 글로벌 경쟁력 입증

지난달 日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  
전문성, 유저 친화적 서비스 주요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대표 이미지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는 서브컬처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정상급 흥행 파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다양한 출시 캐릭터와 콘텐츠를 담은 4주년 업데이트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관련 키워드가 전 세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기도 했다.

이같은 화제성을 바탕으로 ‘블루 아카이브’는 업데이트가 적용된 지난달 21일 곧바로 일본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한 주 뒤 페스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신규 학생 모집이 시작된 직후 28일에 재차 1위에 오르며 2주간 두 차례나 정상상을 달성했다.

일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5일 간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유지했다.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 양대 마켓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4일 신규 학생과 이벤트 스토리, 다양한 인게임 이벤트 등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특히 ‘호시노(무장)’와 ‘시로코\*테러’는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대책위원회편’의 핵심 캐릭터로, 강력한 성능을 갖춘 한정 모집 학생으로 등장해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블루 아카이브’는 윈스토어에서 지난달 24일부터 27일,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 번에 걸쳐 최

고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블루 아카이브’가 4년 동안 국내 대표 ‘K-서브컬처’로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인기 게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배경으로는 장르 전문성에 기반한 개발 경쟁력과 유저 친화적인 서비스가 꼽힌다. 실제 넥슨게임즈는 지난해 8월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전문 개발 조직 IO 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IO 본부는 ‘블루 아카이브’ 라이브 서비스를 맡고 있는 MX스튜디오와 신작 ‘프로젝트 RX’를 개발하는 RX스튜디오를 총

괄하는 조직이다.

넥슨게임즈 IO본부 김용하 본부장은 최근 ‘블루 아카이브’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올 한 해 더 좋은, 더 많은 블루 아카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편의성 개선, 풍성한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약속했다.

우선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 서버와 한국 및 글로벌 서버의 업데이트 격차를 점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게임 플레이에 부담이 더해지지 않도록 연말까지 조금씩 줄여 나갈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격차를 3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 단축으로 인한 유저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 본부장은 “MX스튜디오 개발진이 열심히 준비한 업데이트에 많은 선생님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콘텐츠와 풍성한 행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동국제약 뷰티풀링 오일가글 출시

동국제약이 ‘뷰티풀링 오일가글(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소나무 숲의 향을 구현한 ‘파인포레스트’, 민트 향 ‘에메랄드민트’, 루이보스 향을 담은 ‘루이보스 에디션’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뷰티풀링 오일가글은 비정제 냉압착 공정을 통해 추출한 골든 호호바 오일과 아유르베다 블렌디드 허브를 8:92 비율로 함유한다. 해당 성분으로 이뤄진 2층 구조의 제형이 지용성, 수용성 세균을 제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W컨셉 10일 ‘뷰티페스타’ 개최

W컨셉이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뷰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W컨셉에 따르면, 이번 ‘뷰티페스타’에는 인기 뷰티 브랜드가 총출동해 2만여 개 상품을 최대 90% 할인가에 선보인다.

먼저, ‘패션의 완성은 뷰티’를 주제로 올 봄·여름 패션 트렌드 키워드와 뷰티 상품을 연계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인기 뷰티 브랜드 상품을 3일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는 ‘72시간 브랜드 세일’도 진행한다.

숏폼 영상으로 보는 ‘뷰티 스타일링’ 코너도 마련했다. 스킨케어 순서, 메이크업 제품 활용법 등 20~30대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뷰티 노하우를 담은 영상을 소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영상 공개

‘세계수의 협곡’ 등 주요지역 담아내



레전드 오브 이미르 ‘세계수의 협곡’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대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월드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월드 프리뷰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주요 지역인 ‘헤르모드의 갈림길’, ‘세계수의 협곡’, ‘우트가르트 요새’, ‘아스가르트 성’, ‘에기르의 절벽’ 등을 담았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해 북유럽 신화의 거칠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최빛나 기자

## 넷마블, 12일 ‘RF 온라인 넥스트’ 쇼케이스

개발 방향성, 주요 콘텐츠 등 소개

넷마블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는 12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20여 년간 글로벌 54개국 2000만명의 이용자를 모은 ‘RF 온라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이다.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오는 12일 오후 8시에 공개되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넷,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권민관 넷마블엔터테인먼트, 흥광민 총괄 PD, 이다행 사업 본부장 등이 등장해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신작의 개발 방향성과 주요 콘텐츠, IP 세계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RF 온라인 넥스트’의 정식 출시 일도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넷마블은 지난달 22일부터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최빛나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신한금융그룹, 취약계층 겨울철 의식주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캠페인인 '술선수범 릴레이'의 네 번째 사업인 '취약계층 겨울철 의식주 지원'을 위한 주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가운데)과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해 새 이불을 전달하고, 기존 이불들을 수거해 세탁 후 재전달했다.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이 명동상인연합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소상공인 맞춤형 행복상자 만들기'와 '거리 환경정비 점검'으로 진행됐다. /하나금융그룹

## 한국파파존스 주니어 스키기술선수권대회 후원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가 올해도 스키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2025년 국제 주니어 스키기술선수권 대회 후원에 나섰다.  
 파파존스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모나 용평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 주니어 스키기술선수권 대회와 제13회 전국 주니어 스키기술 선수권 대회, 제9회 전국 주니어 레이싱 스키대회에 메인 협찬사로 참여해 대회 후원금과 파파존스 피자 250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파존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최대 협찬사로 참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니어 스키 선수들의 꿈을 응원해왔다. 특히 기온이 낮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파파존스의 이동식 피자 나눔 차량인 '매직카'가 출동, 갓 구워 낸 따뜻한 피자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 인사

- ◆고용노동부◇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권창준◇과장급 전보▲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금융위원회◇고위공무원 전보▲대변인 손영태◆안산시◇4급 승진▲백종선 ▲이억배◇5급 승진▲김은 ▲이재만 ▲이수애자 ▲이태주

### 부음

- ▲송재남씨 별세, 김태균(전남도의회 의장)씨 모친상=8일 오전, 광양시 동광양장례식장 2층 제1빈소,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광양 영세공원. 061-795-7700
- ▲유외석(89)씨 별세, 이병환(성주군수)씨 모친상=8일 오후 9시, 성주효병원장례식장 귀빈 2호실, 발인 11일 오전, 장지 성주군 선남면 오도리 선영. 054-933-1282
- ▲심한옥씨 별세, 심영근(더헤리티지니시싱홀 대표)씨 부친상 =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101호(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발인 11일 8시 30분,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부. 031-799-5200
- ▲김용년(전 목원대학교 교수)씨 별세, 김영일·김원일(백석대 교수)·김성일(청주대 교수)·김옥진씨 부친상=8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30분, 장지 경북 안동 선영. 042-611-3980



**김지희 변호사의  
 눈에 잡히는 법**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작년 1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3고단510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간의 판결들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제

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거나, 일부 부인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2014. 10. 16. 선고 2023고단226)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 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그 사용 용법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수공구가 기계에 끼어 들어가 튀거나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담당 직원이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갖추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바른

## LGD, '동반성장 새해모임' 개최... 기술개발 협업 등 과제 공유

**정철동 사장, 소통·협력 강조  
 "협력사 덕분에 본원적 경쟁력 집중"**  
 LG디스플레이가 새해를 맞아 협력사 대표들과 만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시 사업장에서 정철동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70여 개의 핵심 부품, 설비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5 동반성장 새해모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행사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기반 원가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품질 경쟁력 강화, 미래 기술 개발 협업 등 동반성장을 위한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또 올해 사업부별 전략 방향성에



(왼쪽부터) 정승렬 이데미쯔전자재료한국 대표이사, 문인식 현우산업 대표이사, 박영근 탐런토탈솔루션 대표이사,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박진남 LG디스플레이 구매그룹장(전무)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LG디스플레이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시장 환경과 업계 트렌드 등을 전망하며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미래 준비를 위한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졌

다. 이어 지난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주요 부품 및 설비 협력사에 '베스트 파트너 어워드'를 수여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협력사 덕분에 사업의 본질

인 고객가치 창출과 수익성 확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근본 경쟁력인 개발, 생산, 품질, 원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최고의 차 어워즈' 4개 부문 석권

**싼타페 '올해의 차'... "혁신성 입증"**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제네시스는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의 '2025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4개 차종이 수상했다.  
 카즈닷컴은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현대차 싼타페(올해의 차) ▲현대차 팰리세이드(최고의 가족용 차) ▲기아 EV9(최고의 전기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최고의 고급차)이 선정됐다.  
 카즈닷컴은 싼타페에 대해 "다재



현대차 싼타페.

다능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독창적인 디자인, 혁신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편의사양이 인상적"이라며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이 동급 SUV 중 가장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팰리세이드 가족용 차에 필수적인 다양한 안전 사양과 탑승 편의성

까지 확보된 넓은 3열 공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V9은 넉넉한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인상적인 급속 충전 성능을 갖춘 3열 전기 SUV로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상품성을 증명했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에 뛰어난 성능 및 편의 기능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SUV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의 리더십과 혁신성을 입증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최고 품질과 높은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파바리카노 마시고 토트넘 직관하세요"

**파리바게뜨 응원 이벤트 진행**  
 파리바게뜨는 커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홈 경기 직관 경품을 제공하는 '파바리카노 마시고 토트넘 응원 가자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벤트는 내달 7일까지 진행되며 '파바앳'이나 '해피오디'를 통해 파리바게뜨 커피를 구매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토트넘 경기 직관 VIP석 티켓(인당 2매)과 5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포함된 '토트넘 경기 직관 패키지' 등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Toytron, Sunwoo&Company All rights reserved.



내동생은 천하무적

뮤지컬

# 반짝반짝 달님이

2025.02.07(금) ~ 03.02(일) 서울 상상나라극장

주최 | 이지기획 SUNWOO & COMPANY    제작 | BLUE MON STUDIOS    주식회사 지킴이    홍보마케팅 | 이지이 컴퍼니 COMPANY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 고래 싸움 속 새우된 '수출 中企'



김승호의  
시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화를 통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섀넌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청 기업이 해외로 가면서 동반진출한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 당시 8만8486개였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24년 현재 9만5905개로 늘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9만5229개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 주춤했다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

은 2020년 당시 19.6%까지 증가해 20%를 넘는 듯 하다 이후 하락하며 지난해엔 16.8%까지 줄었다. 대기업, 중견기업 수출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활동반경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수출은 한류의 영향을 받은 화장품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 수출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뷰티업체들의 공략에 한국 기업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현재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국격까지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한류가 언제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장품 수출도 풍전등화인 셈이다. 중고자동차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 2위에 이름을 올리며 화장품과 함께 선전하고 있는 대표 품목이다. 하지만 대기오염과 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각국의 중고차에 대한 규제 움직임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엔환경계획(UNEP)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연합해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중고차'(Safer and Cleaner Used Vehicles for Africa)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차 수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2020년 47개국에서 62개국까지 늘었다. 여기에 중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시장에 가세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한국의 중고차와 경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인 중고차도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 10곳 중 4곳 가량은 5인 미만 소기업이다. 10곳 중 7곳은 업력 10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이다. 총성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했다. 보호무역의 담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래만 쳐다보다 바다의 중요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새우의 씨를 말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bada@metroseoul.co.kr

# 결제시장, '갈라파고스화' 끝내야



김정산의  
시선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설을 두고 카드업계의 관심이 크게 쏠린다. 기대와 다르게 애플페이가 한국 결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나 삼성페이 대비 가맹점 수가 현저하게 적은 만큼 결제 환경이 나쁜 것이 주원인이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 상륙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의 비중은 15%를 안팎으로 본다. 이마저도 편의점,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제외하면 중소형가맹점의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대형 가맹점에서만 거래할 수 없으니 아이폰 사용자들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간편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다.

이처럼 애플페이는 한국에서 실효성이 낮은 처지다. 관련 업계는 물론 아이폰 사용자가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간 애플페이는 사실상 현대카드만 영위하던 서비스였다. 실제로 현대카드가 국내 최초로 애플페이에 진입한 지난 2023년 2월 신규 회원을 대거 유치하면서 '선제진입효과'를 제대로 누렸다.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신규 카드사 진입이 현대카드에 약제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회원이 신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갈아탈 것이라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좀 다르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에 신규 카드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현대카드 또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카드업은 결제업이다. 신용카드 발급수도 중요하지만 결제 활성화가 우선 순위라 의미다. 그간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의 독점체제 형태를 띤 만큼 NFC단말기

보급 속도도 지지부진했다. 신규카드사의 진입은 이같은 결제환경 개선에 속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결제 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한국은 'IT강국'이란 별명에 맞지 않게 NFC 단말기 보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인접 국가와만 비교해도 체감된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NFC단말기를 보급했다. 중국은 QR코드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애플페이 사용은 지난 2016년부터 이뤄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로 결제된 잔액은 1209조원이다. 체급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결제 시장은 '갈라파고스화'로 유명했다. 기술과 서비스의 질이 국제 표준에 못 미치고 고립됐다는 뜻이다. 신규 카드사의 애플페이 진입이 결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길 기대해본다. /kimsan119@

## 오늘의 운세 2월 10일 (음 1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다. 48년생 눈치보다는 소신대로. 6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7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 소** 37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걸. 4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남감. 61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7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래야. 85년생 노후 차량정비 하는 날.
- 호랑이** 38년생 가까운 사람부터 신용을 쌓아가자. 50년생 고생은 많고 실속은 적고. 62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벌 언덕이 질질. 74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반 비옥한 땅이 된다. 86년생 오죽하면 삼재 팔관 관재구설이라 했겠는가.
- 토끼** 3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한다. 63년생 인색하면 고독이 계속된다. 75년생 사랑을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87년생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잘해야 열매를 가지 못한다.
- 말** 40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본다. 52년생 함격의 기쁨이 있다. 64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88년생 마음은 즐거운데 몸은 천근만근.
- 뱀** 4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현명. 53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65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발전도 있다. 7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러니 좋은 하루. 89년생 붉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 양** 42년생 생선이 먹고 싶다면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54년생 소피 동료와 불화를 조심. 66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8년생 월급으로 은행적금을 시작해보라. 90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과감히 도전.
- 양** 43년생 주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신용을 지켜라. 55년생 남자 친구의 기대가 부담. 6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79년생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너무 짧다. 91년생 시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 원숭이** 44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56년생 양보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6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8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오후유주는 하지 말도록. 9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 닭** 4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7년생 본인의 거짓말로 결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된다. 69년생 마음을 비우고 그냥 웃으며 살자. 8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기쁜 날도 있다.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라.
- 개** 46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5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70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82년생 목돈이 들어오면 돈을 빌려달라는 자가 생긴다. 9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지출도 있다.
- 돼지** 47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될 듯이 기쁘다. 59년생 큰 업체에서 일거리가 들어온다. 71년생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 83년생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지 말도록. 95년생 동창을 모임에서 승진 자랑 너무하지 않는 것이.

## 김상회의 4계 기도와 주술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강조한다.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기도란 마음을 모으되 진실한 참회도 전제가 된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나 기도가 절실하고 간절해지면 자신의 껌질과 허영이 녹아내린다. 기도에 기도와 주술이 있다. 주술엔 어떤 심적 탐욕이든 헛된 욕망이든 그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많다면 주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품격과 윤리는 들어 설 자리가 없다. 아마 마태복음의 한 구절로 기억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다. 여기엔 의미심장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 선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본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바램은 그저 흑마술일 뿐이다.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일 뿐이다. 화염경 입법제품의 한 부분인 보현행원품에도 사탄 발원은 이뤄지지 않게 한다는 대목도 보인다. 기도를 방자한 사탄 바램은 이미 발원이 될 수가 없다. 그저 탐진치로 버무려진 욕심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저 사람과 잘되기를... 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 아프지만 실제로 이런 바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와 주술의 효험을 듣는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 이뤄지지 않아도 불만을 품지 않는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순하고 정하면 자리타한 기도가 된다. 사되게 쓰면 끝이 허망한 주술일 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5	2			3	
		9					
		4	9	6		5	
2	8				5	9	4
	2				3		
3	4	5			1	9	
5			8	3	4		
				7			
7		2		9	8	1	

1			3	6			4	
	3		6		8	9		
	2		7	9				
9	4							
8	7	3				9	2	6
					4		3	
				3	9		8	
	9	6		5			4	
3			8	1				9

1	8	6	9	2	7	9	2	
2	9	7	2	9	6	1	8	6
9	1	2	7	8	6	2	9	
6	9	1	8	2	2	9	7	8
8	2	8	9	7	1	2	6	9
7	6	9	6	2	9	8	1	2
9	8	2	9	6	7	2	8	1
2	2	9	1	8	6	8	9	7
8	7	6	2	1	9	9	2	8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늘어나는데... 노동인권 교육은 '전무'

### 학교 밖 청소년 30% 아르바이트 경험 야간·휴일 근로에도 임금 못 받아 노동인권 교육, 학교 중심 이뤄져 학교 밖 청소년 맞춤 교육 지원 필요

서울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노동 인권 교육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미의 청소년도 노동 인권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시 신규 학업 중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6418명이었던 서울시 신규 학업 중단자 수는 2021년 9165명, 2022년 1만1902명으로 3년 새 약 85.5% 급증했다.

“2021년 서울 학생 노동 인권 실태 조



한 장으로 보는 청소년 노동 인권(학교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실) 리플렛 표지./서울시교육청

사'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7.7%)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야간·휴일 근로를 했는데 가산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 순으로 자주 발생했으며,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교 밖 청소년은 51.4%에 달했다.

현재 노동 인권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 중 70.9%는 효과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 긍정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75.8%로 가장 높았다. 직업 계고(73.0%), 일반계고(65.8%)가 그다음이었다.

원동아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노동 인권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었던바,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노동 인권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했더니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고, '참고 계속 일했다'(33.7%)가 뒤를 이었다.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노동 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12.0%),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10.9%), '개인적으로

항의했다'(8.7%) 등 어떤 식으로든 노동 인권 침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원동아 예산분석관은 "노동 인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스스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고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 중 어떤 게 부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교육 사업을 마련해 민주시민으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시민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10건 폐지”

###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 개선 등 추진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10건을 발굴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설 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그간 직접 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던

서 "하지만 건설 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해당 규제를 없애는 대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직접 시공 20%시 만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또 시는 건설 현장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 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 개선 ▲공유 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계약 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기후 예산제 운영 개선 ▲서울형 키즈 카페 이용 대상 확대 ▲창업 지원 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지식에 405개 강좌 신규 개설

### 생성형 AI, 금융·재테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금융·재테크, 마음 건강, 은퇴 설계, 취미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 405개가 오는 12일까지 차례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개설된다. 신규 강좌를 포함한 전체 강좌 수는 13개 분야 총 1800여 개다.

도는 도민의 학습 수요와 최신 트렌드, 이슈를 반영해 신규 강좌를 구성했다. 온라인 강사진은 김미경 강사, 김경일 심리학자, 김삼욱 물리학자, 홍춘욱 경제전문가, 정재승 물리학자, 윤대현 정신건강의, 김현 인문학자 등 분야별 명사로 꾸렸다.

주요 강의로는 ▲디지털 역량강화(챗 GPT 혁명,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질문력) ▲생활 취미(시니어 근력운동, 웹소설 쓰기) ▲인문·교양(머니 트레이닝, 번아웃 벗어나기, 현대 건축 여행) ▲직무 역량 개발(대화의 기술, 퇴사 준비는 40대부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가까운 사람의 우울증 어떻게 대해야 할까?', '치매 노인 가족을 위한 돌봄교육', '경계선 지능인 가족을 위한 교육' 등 돌봄환경 관련 강좌가 새롭게 개설됐다. 자격증 취득, 외국어, IT 등 200여 개 강좌는 최신 정보로 내용을 교체하거나 이용자 수요에 따라 확대·재구성됐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도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자 강좌를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평생학습 강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 서울시, 올해 경력단절 여성 2620명 지원

###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서울시는 경력 단절 여성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620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11~28일 서울 우먼업 누리집에서 '구직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 거주 만 30~49세 미·취창업 여성 중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

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1800명에게 3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3개월 동안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연계를 돕는 '우먼업 인턴십'도 진행한다. 시는 내달 인턴십 참여자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인턴 기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779원, 월 246만원)을 받으며 일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시는 우먼업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들과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기업 50곳에 '우먼업 고용 장려금'(30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부득이하게 경력이 단절된 3040 여성 누구나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살리고 취·창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학자금 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서 신청

서울시는 2025년도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 회복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학

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에 신청하면 지난해 7~12월 발생한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받는다.

희망자는 올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1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 신용 유의 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7 | 해질 / 18:06

2월 10일 (월) 음력: 1월 13일

수도권 날씨: -8 ~ 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4/2, 동두천 -12/2, 가평 -14/2, 파주 -14/1, 서울 -8/2, 양평 -14/2, 인천 -7/1, 수원 -7/2, 용인 -7/2, 평택 -14/2, 백령도 -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佛 사르코지, 대통령 최초 '전자발찌 착용' 굴욕...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자국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단호히 거부

▲“하필 거기로 넘어져서”... 관람객 실수로 르네상스 거장 작품 찢어져  
 ▲추락한 알래스카 항공기 탑승자 10명 유해 모두 수습 완료

▲1월 중국 소비자물가 0.5% ↑... “춘절 수요 영향”  
 ▲북한, 러시아와 드론 공동 개발... 올해부터 양산 전망



화장품 정리함 부터 LED조명까지... '화장대테리어' 확산 L1



Life

셀트리온  
집펜트라  
블록버스터 기대감 L2



# “트로트, 인생 히로애락 담아... 아픔 위로하는 노래 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 가수 정들레

가수 정들레는 개그부터 노래까지 다양한 무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이룬 그는, 지금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로 시작한 가수로서의 행보를 통해 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가치와 삶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수 정들레는 학창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즐거웠다. 가요제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개그맨 컬투가 진행했던 인기 프로그램 '심심풀이'에 출연한 경험은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방송에서 자신이 가진 끼를 발산한 그는 그 자리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날 방송 관계자가 레크리에이션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가능성이 커 보이니, 졸업 후 방송에서 또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그를 응원했다.

실제로 가수 정들레는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간직해 온 꿈의 크기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음악만 본격 전공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그는 자신의 장기인 음악적 재능을 적극 활용했다. 보컬 실력에 주부 가요 교실의 특징을 표현하는 연기를 재치 있게 더해 실기 시험을 통과했다.

이후 대학 생활에서도 선배와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OBS 공채 1기 개그맨 시험도 주변의 권유로 응시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2008년 OBS 공채 1기 개그맨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OBS는 공채 1기 개그맨을 개그를 나누고 아끼는 리더들이라는 의미인 '개나리'로 선보인 바 있다.

그는 "학교 생활은 지금 떠올려봐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선배들이 저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주고 저만의 매력을 찾도록 도와줬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스스로도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4월 미안마에서 열린 민잔 축제의 '코리아 미안마 국제 교류 콘서트'에서 가수 정들레가 K트로트를 알렸다.



가수 정들레.

OBS 공채 1기 개그맨 선발대회서 '우수상' KBS 아침이 좋다 등서 리포터 활약 하기도 트로트, 친숙하고 누구나 따라 부를수 있어 대표곡 '소주각' 작사·작곡 후 5년만에 완성 개그·노래·리포터·라디오DJ 등 활동 넘어 족구협회 홍보대사 탕탱걸스 등 경력 쌓아

를 가졌다"고 말했다.

개그우먼으로 데뷔하고 OBS의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해 KBS 아침이 좋다, MBN 생생정보마당, YTN 최강기업 등에서 리포터 활동을 활발히 한 그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소통 방식이 큰 힘이 됐음을 강조했다.

2018년에는 첫 싱글앨범 '안녕 내사랑'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그는 "트로트는 분명 어

렵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 가사와 멜로디를 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팝송이나 상송은 온전한 뜻이 와닿지 않고, 랩은 따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트로트는 가사에 인생의 히로애락을 보다 직관적으로 담아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멜로디도 누구나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로트만의 친근함에 집중했고, 트로트가 음악의 한 장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표곡 '소주각'도 그가 추구하는 트로트의 정체성을 실현한 작품이다. 이 곡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인데, 편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8마디가 비어 있는 등 화성학적으로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홍민 작곡가를 만난 소주각은 다시 완성됐다. 정홍민 작곡가는 소주각을 있는 그대로 다듬어, 빈 마디를 채우지 않은 원곡을 살렸다.

가수 정들레는 "지금 당장은 남들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하고 혼자 속으로 견디는 것은 힘들지만, '소주각'처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소주각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진 것처럼 아픔을 위로하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발견하게 되는 일상 속 소재들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며 "모든 것이 평범하게 존재해 소외될 때도 있지만 평범함 속에도 특별함은 숨어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운을 상징하는 주제로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

가수 정들레는 올해로 방송 활동 17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개그, 노래, 춤 등을 두루 갖춰 리포터, 가수, 라디오 DJ, 흡소핑 쇼호스트 등으로 활동 영역의 폭을 넓혀왔다. 방송 활동 외에 대한민국족구협회 홍보대사 탕탱걸스, 마포소방서 명예소방관 등의 경력도 쌓았다.

그는 "족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 운동이다. 탕탱걸스 활동 중에 '족구'를 해외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적이 있다. 베이스볼을 야구로 번역한 것처럼 족구도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족구라는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며 "대권도나 감치처럼 족구도 세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가수 정들레는 지치지 않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감사함과 책임감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 각종 시험, 방송 활동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 위에서 제 삶이 흘러왔는데, 모든 과정에서 저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저를 지켜봐준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이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제가 가수로서 저를 크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의 내향적인 성격도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밖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는 "일 자체에 몰입하고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언행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망동하지 않으려 명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로 결국 대중에게 신뢰받는 방송인과 가수로 남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빙속 여자 팀 스프린트 금메달...김민선·이나현 2관왕  
▲중국과 잇단 충돌...쇼트트랙 남녀 계주 '노 메달' /사진 뉴시스

▲여자 컬링대표팀, 첫 경기서 대만에 11-0 대승 거둬  
▲이상혁 2025년 산뜻한 출발...첫 대회서 2m31로 우승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 남자 회전 종목서 은메달  
▲16세 박윤재, 로잔발레 콩쿠르서 韓 남성 첫 우승